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우대금리도 내림세는 막아줍니다!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김영삼대통령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정서가 거세다. 과연 다종교 사회에서 지도자의 종교관은 어떠해야 할까.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도자의 종교관

자기가 믿는 종교만 숭배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난하는 행위일랑 하지 말 것이며 화합의 도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함은 곧 자기 종교의 성장을 돕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봉사하는 일이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일이며 또한 다른 종교에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

자기 종교를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방 · 경하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종교에 대한 찬양과 헌신을 보이고자 함인데 그것은 반대로 자기 종교를 심히 손상케 하는 결과가 된다.

화합은 매우 좋은 것이다. 모든 신민들은 경청하라. 다른 이가 가르친 교리에도 귀를 기울일 지어다.

〈아쇼카 칙령비문 12장〉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나란다의 바바리나 숲에 계셨다. 그때 니간타(인도에 있는 外道의 일파, 후세의 자이나교)의 제자 우바리거사는 '업'에 관한 담론을 펼쳐 부처를 굴복시키려다 승복하고 귀의하기를 요청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거사여, 그대같이 유명한 사람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우바리거사는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세존에 대해 기쁨을 더하나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곧 깃대를 들고 돌아 다니며 나란다에 다음과 같이 소문을 낼 것입니다. '우바리거사가 내 제자가 되었다'고.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모든 니간타교도들이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세존의 4부중(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거사여, 저 니간타들은 내집에서 오랫동안 존경을 받았다. 저들이 오거든 너는 마땅히 저들을 공양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전에 세존께서 '마땅히 내게 보시하고 다른 이에게 보시하지 말라. 마땅히 내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이의 제자에게 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사여,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일체에 보시하여 마음껏 기뻐하라. 다만 정진하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말고 정진하는 자에게 지성껏 보시하라'고."

〈중아함경 제32 우바리경〉

관련기사 2 · 3면

"종교편향 이대로 안된다"

조계종 대책위 구성 · 피해사례 창구개설… 'YS 사과' 촉구 성명 잇따라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방부 구내 국군 중앙교회에 배참석으로 빚어진 종교편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종교정책 시정을 위한 대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31일 총무회의에서 '종교편향 정책 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창구(곡스 02-733-8285, 하이텔-KBJOC001, 천리안-JOKYE, 부다피아(02-732-1520)-JOKYE)를 개설했다.

종교편향 대책위원장 법타스님은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종교간에 위화감을 일으키는등 심각성이 우려된다"며 "모든 종교편향 사례를 모아 종단이 나서 시정토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책위는 이번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 파동 대책뿐 아니라 향후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미연에 방지하는등 상설기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도 30일 긴급 중진회의를 열고 김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 파동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 3선이상 종회중진위원, 상임분과위원장, 사회분과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에 따른 파동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무원이 적극 대응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 비상 임시종회를 소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와 관련, 지난달 30일 이양호 국방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김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에 따른 경호와 의전상의 문제로 군법당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종교관련 업무수행에 형평을 잃거나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불교계와 전국민앞에 책임지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천승가회등 승 · 재가 16개 단체는 이날 '종교편향정책의 중단과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방장관의 사과는 정부와 대통령의 호도책이며 실질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6일까지 성의있는 사과가 없을때는 '반 신한국당 범불교도 대책위'로 전환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대책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 청와대에 대통령의 종교편향 시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2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관음종 중앙종회, 태고종 보현도량 등 각 종단 및 승가 단체도 김대통령의 특정종교 비호와 전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은 지난달 29일 총무원 5층 법당에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 개원이래 처음으로 열린 포살법회는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을 계사로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원산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종무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14면〉 〈사진=고영배 기자〉

"참회 합니다"

남북 불교지도자 회담 추진

조계종, 정부와 협의중 … 5월 3·4일 조계사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불교지도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오는 5월 3,4일 서울 조계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준비중이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의 통일정책과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남북불교지도자회담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회장 법타스님)가 주관할 이 심포지엄에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 홍통수회장을 비롯한 북한불교대표와 재일본한민족불교협의회장 태연스님,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스님, LA 심인당 지현정사 등 해외불교대표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총무원은 북한불교대표 초청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협의중에 있다.

귀순불자 신행모임 남순지장회 10일 창립

귀순불자들의 신행모임 남순지장회 창립법회가 오는 10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회장 김명철씨(94년 귀순)를 비롯해 38명의 귀순불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월주 법타스님 설조 지하 등 9명의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했다.

남순지장회는 △매월 정기법회 개최 △월남귀순자 불자화 △사회봉사 △통일후 북한등포교화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고속철 대통령 결단 필요"

경주발전연 토론회… 건천 우회노선 지지

고속철도 경주도심구간 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도시발전연구소(소장 김재석 경북산업대교수)가 지난달 26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고속철도 경주구간 해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재석교수는 "도심통과노선은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 △도시양분 및 미관저해등의 이유를 들어 건천우회노선을 최선안으로 제시한다"며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상득교수(울산대)도 건교부의 도심통과 지하노선안에 대해 "3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건천우회노선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며 건교부-문체부간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사회각계 지도급인사들과 함께 경주도심통과반대 청원서를 곧 청와대와 국회 정부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찰등급 심사

조계종, 분담금 내년실시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지난달 30일 1차회의를 갖고 사찰등급 심사에 들어갔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직할사찰과 본말사의 등급사정을 위한 예산서를 이달 10일까지 수집하기로 하고 마곡사가 제출한 사찰등급예산서를 검토했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이달중 본사 및 말사, 직할사찰등급을 확정, 내년부터 등급에 따른 분담금납부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족사관학교 참선 수업 현장 14면
사형수에서 법사로 양동수씨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불지부속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생명중심
'95「품질경영100선」선정 '95「경제정의 기업상」수상 '95「가치혁신부문 대통령상」수상
KISAN
생명중심의 종합건설회사
기산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아파트, 토목, 플랜트, 환경사업 등 제반건설 분야에서
자동차 판매사업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신뢰를 쌓아온 종합건설회사 기산.
기산이 새로운 각오로 21세기를 향해 도약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우선 생각하는 공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생명중심'의 신념으로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조하며
21세기 세계 초일류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기산을 지켜봐 주십시오.
KISAN 주식회사 기 산
●본 사 : 서울시 영등구 목1동 406-28 TEL.650-6500
●건설지역본부 : 서울/수도권/동부(02)784-8221, 중부(0417)556-8961, 영남(051)625-6048~9, 호남(062)364-0370~3
●자동차판매부 : 부산(051)627-3211, 대구(053)652-4800, 경남(0551)22-4441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자동차판매
■기산 가족회사 ●효산엔지니어링 ●기산개발 ●기산실업 ●기산실업신용협동조합 ●무기산업

사 설

포살법회와 계율지키기

조계종의 중앙 종무행정 기구인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 근무하는 스님들이 불교회관 5층법당에 모여 포살법회를 열었다. 이날 스님들은 생활이 계율에 입각해 바르게 행해져 청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참회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치하고 종무행정을 하는 스님들이 포살법회를 연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세 당시에 많게는 일천이백오십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진리를 설파하시고 계율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 깨우친 자가 있으면 중생과 하늘의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러 가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려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중심으로 볼려 다니게 되었다. 특히 승가의 비대화는 정착생활을 부정하는 초기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곳에 수행의 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곳에 모여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이들을 통솔하고 화합시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살법회이다.

포살법회는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바라제목차에 따라 자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바라제목차란 바로 계율을 적어 놓은 책, 즉 계본을 말한다. 이 바라제목차에는 개인적인 규범과 단체생활의 규범이 동시에 들어있으므로 승려 개개인과 승단 내부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포살법회는 보름마다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름날과 말일에 한곳에 모여 장로를 중심으로 바라제목차를 읽어가면 그 과정에 자신이 해당하는 계목이 있으면 일어나 합장하고 대중들에게 참회를 한다. 이때 殺 盜 婬 妄의 네가지 이외는 모두 용서한다. 살도음망과 교단의 화합을 파괴하는 죄는 중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격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계율에 따라 교단에서 추방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들이 더불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단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교단 추방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부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의 표명이다. 그 이외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불교사에 배교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정신의 투영이다. 이런 정신들이 바로 포살법회를 통하여 앙양되었던 것이다.

포살법회는 주로 사원에서 스님들이 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재가신도들에게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재가신도들은 매월 보름 간격으로 3일간씩 8재계를 지키도록 했다. 8재일이 바로 포살법회의 연장이다. 이러한 보살법회가 이제는 안거기간 중에나 몇몇 사찰에서 실시될 정도로 차츰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포살법회는 각 교구본사까지 확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종도가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시킨다고 한다. 사실 포살법회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유사신도임을 공언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극도로 이기화, 개인화, 몰개성화되어가는 사회 또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정립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포살법회의 정신이 절실하다. 이런 운동이 전종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열린마당 대통령의 신앙생활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으로 불거진 대통령의 종교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유지해야 할 대통령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때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불교위상 강화에 사부대중 나설 때

김 철 회 〈한국인성개발원장〉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못지 않게 종교윤리를 준요시 해야 한다.

자칫 나의 종교만을 강조하다가 남의 종교를 비난시키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인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의 해악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종교적 공정성을 지녀야 함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

집권초기부터 예배보는 장면을 심심찮게 언론 지상에 공개하더니 이제 다시 대통령의 종교활동이 타종교의 불편함을 만들어 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종교는 불교이다.

불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얼마나 불교의 위신을 세우지 못했으면 군법당에 신도들이 갇혀 있어야 하는가. 경호상의 문제로 한 종교의 신자를 불편하게 하는 당국도 문제지만 불자들의 무기력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불자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자. 다종교 사회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종교는 바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임을 가르쳐 주자.

국민화합 깨는 행위 묵과할 수 없어

한 순 자 〈군경미망인회 사무국장〉



기독교인 장병도 내 부하요, 불자장병도 내 부하인 것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길래,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종교센터를 이루고 있는 국방부에서 기독교 장병만을 격려하고, 불자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종교참여의 자유까지 침해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창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구호는 허울좋은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불교가 이 나라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민중을 위하여 힘써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형평성 잃은 종교정책은 불교의 위상을 훼손하는 비지성적 결과를 낳았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 불교는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자주화를 위해 힘차게 나서야 하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다.

불교인들은 이제 불교의 자존심 회복과 대통령의 편향된 종교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더 이상 국민화합을 깨는 처사가 없도록 이번 사건을 묵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공인…종교 중도입장 필요

하 재 길 〈대학생불교연합 회장〉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특정집단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공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인 만큼 한 종교에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초부터 한국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지역감정 등의 근절을 공언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한말에 대해 먹칠을 해오고 있다. 친성향적인 인사행정, 청와대내 예배, 부활절로 인한 검정고시일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민화합과 이기주의 배척을 외치는 대통령이 타종교를 믿는 장병들은 외면하고 기독교 장병들만을 위로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편향적인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항상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말고 치우침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다시한번 기대하며 이번 국방부 종교센터의 불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성의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PC통신에 '대통령 종교편향' 비난 잇따라

○……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군요"

……○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예배를 본 것은 아무리 개인 신앙행위로 합리화 한다해도 타종교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조계종에 사과를 하러 간 1월30일에는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은 개혁의 전도사다"라고 했다는 TV뉴스를 봤다. 다음날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

'대통령은 공인이다'라는 사실은 국민학생도 다 알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행동이나 언어선택이 개인 종교에 치우쳐 있다면 그야말로 전도사가 아닐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ID:Silk, 부다피아〉

○……

'기독교 한국당 인가'

……○

신한국당인가요, 기독교 한국당인가요.

대통령의 종교편파 소식을 듣고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역대의 독재라고 했던 3명의 대통령들도 그런 행태는 일으키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이 나라가 민주화를 많이 부르짖다보니 김 대통령이 독일인줄 착각했나봅니다.

세상에 자신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다 있군요. 아마도 자신은 기독교 한국당의 총재인줄 아시겠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자신만을 알고 행동한다면, '먼저 가신 선배들의 교훈'도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지요.

〈서승우, 나우콤〉

○……

남의 종교 중시하는 마음

……○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다스리고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려고 한다면 이 나라에 법이며 지도자며 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평등한 한표 한표로 국가의 통치권수가 되어 국가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로 국민 앞에 서약했던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 종교편향으로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들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개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처럼 종교에 대한 생각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특정 종교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염원해 본다.

〈ID:Oliver, 부다피아〉

○……

국민갈등 조장하는 처사

……○

이제는 소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 일어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요? 국민의 대통령으로 올바르게 서야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행보로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에.

특정종교에 대한 개인적 편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로 또는 지역으로 국민갈등을 조장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기도 벅찬 이 때에 김대통령의 불평등한 종교편향을 규탄합니다.

〈ID:Pig26, 부다피아〉

현대만평

박구원



마음으로 바로 보아야…

목어

서울대 인문계 수석을 차지한 장승수(張承守·25)씨의 인간승리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 사연은 새 봄을 여는 환희의 송가였다. 마치 조춘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처럼 희망, 용기, 의지, 꿈, 인내, 성실, 그리고 인고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막노동 6년에 3차례의 실패를 딛고 영광을 안은 장씨. 그는 쉽게 포기하고, 한탕주의에 길들여지고, 인기에 영합하며, 빨리 승부를 내려는 오늘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게 했다.

11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장씨는 대학진학을 접어두고 돈벌이에 나섰다. 노동판의 잡역부, 택시기사, 신문·가스통 배달 등 고달픈 삶의 현장을 뛰면서도 그는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동생의 학비(고려대 3년)를 대느라 자기 공부를 뒤로 미룰 정도로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끝내 좌절하지 않은 덕분에 이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땀과 눈물에 젖은 장씨의 합격증은 그대로 우리사회의 거울이다.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정상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또 한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22일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시각장애인 길인배(吉仁倍·51)씨. 그는 6살때부터 앞을 못보았다. 그러나 그는 숱한 고난을 이기고 박사모를 썼으며 이제 또다른 꿈에 부풀어 있다.

이같은 결실은 씨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2월4일은 입춘이다. 봄이 시작되면 밭을 갈고 씨뿌릴 준비를 하는 농부처럼 우리 모두 마음밭을 챙겨보자. 돌과 자갈이 있으면 골라내고 희망과 용기와 인내가 가득한 건실한 씨앗을 심자. 부처님께서도 "나도 밭갈고 씨뿌린다"고 말씀하셨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어버이는 '여래'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소망한 적이 없었어도 깨닫음의 보물 창고는 저절로 열어지니, 부유한 어버이가 베풀어 주신 것이다. 어버이는 곧 여래이시고 우리는 붓자이니 여래는 항상 우리를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셨다. 〈법화경 제4 신해품〉

협찬 도솔회 회장 이정희

1996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4년제,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체제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과 및 모집인원

학 과	교 육 내 용	모 집 인 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포교와 불교경전을 교육	60명(통신생포함)	4년제
범패과	불교의식론 및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0명	4년제

2.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15일 ~ 2월 23일
(평일은 10:00 ~ 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6년 2월 25일 (일) 10:00 ~ 18:00

6. 전형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6)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원 (단, 불교미술과는 40,000원)

9. 참고사항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2) 불고학과 범패과는 18:00 ~ 21:00까지 강좌 개설하고, 불교미술과는 14:00 ~ 19:30 사이에 강좌를 개설함.
(3)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남학생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10.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2) 제출서류 중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3) 우편을 이용하여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접수할 수 있으나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 참석하여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입생 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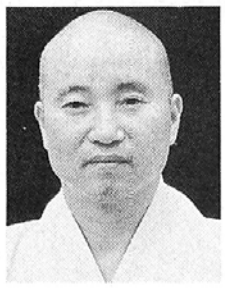
1. 응시자격
(1) 본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4년제 또는 2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 타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4년제 이수자에겐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법계를 품수함.
※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 763-0229, 8536)
(2) 태고종 총무원 (☎ 745-2030 ~ 2)
(3)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4) 경서원 (조계사 앞 ☎ 733-33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특별기고



이 법 산

통치자 본분 잊었는가

며칠전 어떤 법회가 끝난후 한 신도가 "아들이 공직에 있는데 어머니가 절에 너무 열심이면 혹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 이념, 학력, 지역과 빈부의 차이 등으로 국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때 대통령이 개인적 신앙에 치우쳐 편향된 모습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종교적인 갈등마저 더욱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스럽다. 굳이 다른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 권력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김영삼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불교계는 계속 놀라고 있다. 김대통령 취임 초에는 목사를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찬송가를 울리며 예배를 보더니, 역대로 모셔져 왔던 청와대의 불상이 수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일본 호소까와수상과 함께 참배한 불국사 법당에서 남의 나라 수상도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 성상앞에서 정중한 예를 갖추었건만 정작 김대통령의 뻣뻣한 모습을 본 국민의 눈은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인사에서도 고위직의 종교를 볼 때 불자가 현격하게 적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제는 국군종교센터 내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이 TV에 비쳐졌다. 어처구니없게도 바로 옆에 있는 불교법당에 참배온 사람들은 경호의 미명 아래 강력 통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아연실색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군교회내의 특수한 종교집단이 발생 군사기 진작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상식밖의 대통령 출두였다.

과연 진실한 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이 현명한 처사였을까.

게다가 불교계의 반발에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단지 전화로 대통령 경호과정에서 법당출입의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더니, 일전에는 이양호국방장관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뿐 정작 대통령으로서 편파적 신앙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불교계가 무엇을 분노하고 있는지 그 정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2천만 불교도는 초미의 관심사로 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박찬종씨가 신한국당에 입당하고는 스스로 신한국당의 전도사임을 선언하였고,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2백40명을 모아놓고 '역사바로세우기' 특강에서 '김영삼 개혁의 전도사'임을 자처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공직자와 정당인이 특정종교의 지청인 '전도사'로 자청될 때 특정종교 외의 대다수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국가의 방향감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부대를 가보면 지휘자가 어느 종교로 가느냐에 따라 예하 군인의 시선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누구나 공지하는 사실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권력과 돈의 위력에 억눌리고 시달리며 눈치만 살피고 온 우리 국민의 정서에 대통령의 개인 신앙의 특성화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대통령과 관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김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통치자로서 2천만 불교도도 국민임을 인식한다면 전 매스컴을 통하여 불교도와 종단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방부의 무리한 행사기획과 경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아랫사람이 종교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는 현 정부의 분위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종교를 신앙하는 각료들은 교육과 언론과 사회 각 부분의 정책이 종교차원에서 공정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한 사람의 국민도 버리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 단순한 불자들의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영도자이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민족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버릴 수 없고 편애해서도 안된다. 일단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다면 그는 이미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교수〉

현정부 종교편향 사례

1987년—▲김영삼대통령,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퍼지도록 하겠다'고 발언

1993년 2월28일, 3월7일—▲청와대에 목사초청 예배, 언론에서 보도

▲육군 17사단 법당폐쇄와 불상훼손

▲성북구 관내 사찰간판 철거

▲권영해 안기부장, 제2훈련소 방문시 기독교 세례식 장려하도록 지시

1994년—▲독립기념관 연못에 있는 연꽃제거 의혹 제기

1995년—▲공무원 안식년 휴가제도 추진 시도

▲조계사 경찰난입

▲신학대학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교육개혁위 이름으로 발표

▲국가검정고시일,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연기

▲지방세법 개정시 기독교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 유리하도록 조처

▲부처님 오신날 월드컵 유치를 위한 이탈리아 축구단(에이씨 일란팀)초청 경기 강행

金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 파문 일지

1월21일=▲김영삼대통령,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KBS, MBC, SBS 톱뉴스로 보도)

1월23일=▲조계종 포교원 진상조사반 구성

▲국군중앙법당 한상길법사 조사반에 상황설명

▲총무원장 및 각 부장과 종회부의장 등 교계중진스님 20여명은 안기부 초청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유감표명

▲태고종 전국신도회, 한국불교청년회 성명서 발표

1월24일=▲실천승가회, 석림회, 대불청 등 6개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청와대 항의방문: 안국과출소앞에서 1개소대에 의해 저지당함

▲불교인권위, 경불련 등 8개단체 성명서 발표

1월25일=▲문체부차관 조계종 총무원에 '사과전화-총무원장, 정부에서 문서화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을 전달

▲문종수 민정수석·박세일 사회복지수석·김영수 문체부 장관 사과전화

▲부천불교련 성명서 발표

1월26일=▲조계종 총무원 범불교 대책위 발족 협의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 민주당 김부겸대변인, 자민련 고순례대변인 논평: 개인의 종교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종교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해야할 책무가 있는 민주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

1월27일=▲이양호 국방장관, 김우석 내무장관, 이각범 정책수석, 김윤환 민자당 대표위원 전화: 사과표명

▲신한국당 손학규대변인 유감논평

▲재불련 전불련 불민협 등 6개 재가단체 대책위 구성: 성명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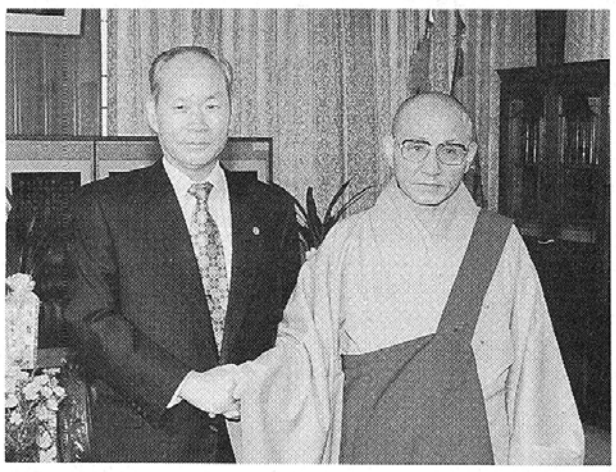
1월28일=▲국방장관, 국방부 호국원광사 성도절기념법회에 참석해 유감표명

1월29일=▲관음종 성명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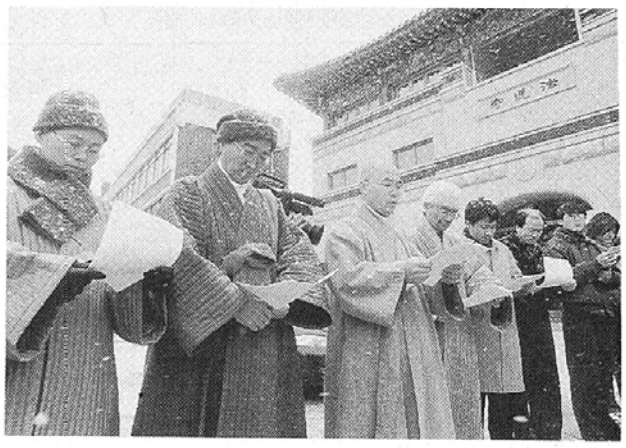
1월30일=▲국방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1월31일=범불교도대책위 대표단, 청화대에 항의서한 전달: 1개소대에 의해 저지당함

▲태고종 보현도량, 불교인권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성명발표



◇이양호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범불교도대책위는 사간동 법련사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도각·종호스님 등 5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항의서한을 전했다.

시 론

청소년이 모여드는 '사찰'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한달이 지났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중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서 큰 제목만 읽는 전직 대통령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북한의 동포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필자는 청소년을 연구하기 때문에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청소년'에 관한 소식에 민감하다. 지난 한달은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우상인 유명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급기야는 이를 비관한 10대 소녀가 따라 죽는 일까지 생겼다. 또한 90년대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공식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집앞에서 10대팬들이 연일 '컴백홈'을 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불교청소년의 해'로 삼은 교계는 청소년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의 생각과 생활이 자신의 청소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온가족이 노래방을 가면 분위기가 깨지기 쉽다. 어른들은 '소양강처녀'나 '남행열차'를 부르려 하고, 아이들은 '굉계'나 '홍보가 기가막혀'를 부르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으로 말해서 생활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청소년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사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 인정해야

옛날 청소년(현재 어른들)과 요즘 청소년사이에 큰 차이중 하나가 '가치관 차이'이다. '질서'라고 할 때 어른들은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나이와 성별을 따져서 누가 더 윗사람인지에 신경을 쓴다. 그런데, 아이들은 '질서'를 '차례로 줄서기' 정도로 본다. 따라서, 좌석버스를 탈 때 먼저 '줄을 선 사람'이 좌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윗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큰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사람과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은 여러가지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호강스럽게 살고 있다.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란다는 것은 행운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골목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이사를 하고, 학교친구를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도 놀 시간과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어린시절에 뛰어놀았던 산과 언덕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꽉 차 있고, 동네어귀와 냇물은 도로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용 교
〈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갈 곳이 없다는 아이들

청소년문제를 걱정하고 청소년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 곳이 없다는 아이들에게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해도 '땅값'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해도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방안을 찾는 이 시간에도 청소년을 유혹하는 업소는 늘어만 가고 그속에서도 청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라도 수킬로미터만 가면 높은 산과 넓은 강이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마다 사찰이 있기 때문에 불교계는 좋은 '수련터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 청소년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잘만 전달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계가 청소년육성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布敎)이 청소년에게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가르침이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도회지에 포교원을 짓고, 불교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재가불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불교지도교사가 있고, 사찰에서 불교학교와 여름수련회가 열린다면 청소년은 모여들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잘 잘못을 가리기 전에 불교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이다.

생활 속의 불교 ⑥⓪

진리에 상표를 붙이려는 딱한 사람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은 다 사람이다. 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하고 구분하는 것은 역사·언어·사상·지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딱지를 붙여 놓은 것뿐이다.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사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다를 바 없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이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진리엔 꼬리표가 없다. 상표도 없다. 어떤 딱지를 붙여도 진리가 진리인 점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진리가 한낱 이름에 얽매일 수 없음은 그것이 진리인 때문이다. 만약 ○○주의, ○○사상 하며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서로 다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이름이란 다만 상대세계의 몫이지 절대세계와는 무관하다. 인간이 자기 편견 또는 편의상 어떤 이름을 붙여 놓았다 해도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다.

불교·기독교·천주교·마호메트교…는 이름이다. 워낙 구분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편의상 붙여 놓은 이름이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이름 붙은 것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든가, 기독교라고 이름 붙은 것만 진리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 이름에 집착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진리는 불교 표도 아니고 기독교 표도 아니다. 석가모니 표, 예수 표도 아니다. 진리엔 그런 당파적인 딱지가 필요치 않다. 이름은 이름으로써 족할 뿐이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용어가 다르니까 내용도 다른가? 자비와 사랑은 그렇게 파당적인 가르침인가? 다른 상표, 다른 딱지인가? 만약 석가모니의 자비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그것은 상표의 가르침일지언정 진리의 설파는 되지 못한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이며 망발인가.

불교도의 불교, 기독교도의 기독교는 다를 수 있다. 분별을 좋아하고 패거리 짓기를 즐기는 인간들이니까 진리에다가 제멋대로 딱지를 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름표 따위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에 집착하는 언행 그 자체가 이미 가르침에 위배되는 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 전 3세기, 인도 대륙을 통일하고 불교중흥에 빛나는 업적을 쌓았던 아쇼카 대왕은 인도 곳곳에 칙령비를 세워 이렇게 선포했다.

"…자기 종교만 숭배하고 타인의 종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 다른 종교도 존중할 것이니 그래야 자기의 믿음에 도움이 되며 타인의 종교에도 똑같이 봉사하게 된다. …"

불교 2천5백여 년 역사를 통틀어 가르침의 전파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게 한 일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포용의 정신, 포용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진리에 상표를 붙이려는 딱한 사람이 있다. 내 종교 네 종교를 유난히도 구별하려는 딱한 사람이 있다. 사랑과 자비가 다르다고 우겨대는 딱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헌신하느라고 남이 믿는 종교와 과당을 짓는 딱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 모르는 딱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파벌적인 언행과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딱한 사람이 있다.

「불교라는 이름의 '불'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요 '교'는 생활 속에서 배우고 닦는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무어라 지어 부르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찬 : (주) 록키 진 광 우

법회 안내

금강경독송회 (02)742-0172
정기법회 매주 수 오전10시30분 오후7시
금강경강의 법회 매월 첫째주 수 오전10시30분 오후7시

보현도량 정광사 (02)598-5291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포살법회 매월 첫째주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 수 오전10시30분
천주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제천 한산사 (0443)46-3047
관음재일 정진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정혜불교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전북 선원사 (0671)31-0108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남원불교대학 동문회 법회 매주 화 저녁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월정사·관음사 주지 임명




현해스님이 지난달 30일 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로, 중원스님이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로 임명됐다.

60사단 장병불자에 수계

운경스님(백련사 주지)은 지난달 28일 60사단 군법당을 방문, 1백60여명의 군불자에게 수계했다.

소년가장에 백미 전달

고담스님(노원불교사암련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소년소녀가장 64명을 초청, 백미 40kg씩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후불 지장탱화 점안법회

법성스님(망우리 보문정사 주지)은 오는 7일 후불 지장,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둥지의 집' 방문 원생위로

법현스님(원각사 주지)은 지난달 28일 신도 50여명과 대부동 둥지의집을 방문 원생들을 위로했다.

'마음의 전화' 개설식

도각스님(한국불교청년회장)은 3월 1일 녹수청산에서 청소년 상담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식을 갖는다.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선

엄원섭씨(삼의한의원장)는 최근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3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총동창회장으로 재선출됐다.

한국일보 DB팀장 맡아

이정씨(전 불교방송 조사자료부장)는 지난 1일부터 한국일보 뉴미디어본부 데이타베이스팀장을 맡았다.

'전문신문협 정기총회

한기호씨(전문신문협회장)는 지난달 3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 한해 협회중점사업을 전문언론의 경쟁력 강화에 두기로 했다.

소년가장 서화전입상자 격려

이호식씨(불교청년실업인회장)는 지난달 25일 전국어린이 가장 서화전 입상자 9명에게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광사서 김송자보살 49재

김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 부인 故김송자보살의 49재가 오는 2월 24일 정광사(주지 송암)에서 있다.

"종교간 화합 무엇보다 중요"



종교협의회장 재선
이 재 석 씨

"회원종단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종교간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 한국종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13, 14대에 이어 15대 회장에 재선출된 이재석씨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종교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유가치관의 계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이회장은 종교인들의 범종교적 의식과 생활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운〉

대입 수석 합격자의 목소리

"내·외전 폭넓게 공부하고 싶어"



중앙승가대 성 준 스 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앙승가대학이 실시한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1천점 만점에 841.8로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은 성준스님(사회복지학과)의 말이다.

봉령사 대교과를 지난 1월 수료한 후 곧바로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해 또다른 공부에 전념하게 될 성준스님은 "실천없는 맹목적 지식추구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밖에 없듯이 중앙승가대학에서는 여러 분야의 공부를 폭넓고 깊이있게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가 구도자의 몫이지요"라고 덧붙였다.

1990년 전북 진안 고림사에서 광석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준스님은 공부하는 동안 불교의 생활화 방안을 연구해 열린불교를 추구하겠다고 한다. 〈필〉

'우리 뿌리 불교' 인식 서울대 중퇴



동국대 불교학부 권 희 성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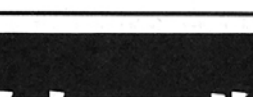
"불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여 제 자신부터 생활에서 배어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올해 동대 불교학부 수석을 차지한 권희성씨(30세)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4년 중퇴하고 새로 입학한 만학도이다. 불교학을 지원한 것은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하다보니 자연히 우리문화와 환경이 불교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천주교신자인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권군은 "초기불교에 관심이 많다"며 "인간적인 종교인 불교학을 평생토록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권희성씨는 85년 안양 신성교를 졸업했으며 이번 입시에서 1천점 만점에 891.75점(수능 161.1)을 받아 동국대 불교학부 수석을 차지했다. 〈원〉

"진리펴는 종교지도자 평소 희망"



위덕대 불교학과 장 미 룡 군

"뜻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최정 심인당의 덕일 정사님 권유도 있었구요." 위덕대 불교학과에 수석합격한 장미룡군은 상위권에 드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신생 위덕대에 지원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을 통해 법을 펴는 불교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때 집근처에 있는 최정 심인당이 웬지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찾아간게 불교와의 첫인연인 장군은 평소 생활속에서 불손한 마음이 들때면 늘 육자진언 염송을 통해서 말끔히 정화했다며, 최근 읽은 책중에서는 〈인도불교사상사〉(상·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장군은 올해 진각종립 대구시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윤〉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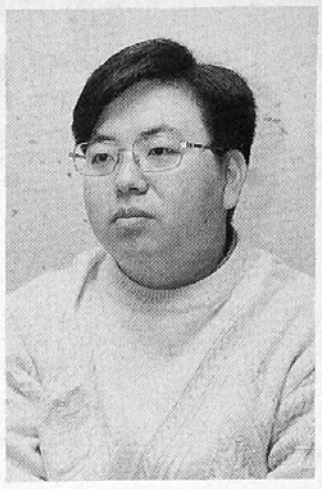
▲일념장학회 창립=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양선법장)는 오는 10일 오후5시 부산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인사

조계종 총무국장 지현스님(봉화청량사 주지), 사서차장 성혜스님(승가대법인사무처장), 정념스님(상원사 주지), 수석사서 정빈스님(전 총무우원 기획국장), 복지재단기획실장 현중스님(전 수석사서).

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 이영구(전 불교TV 부산지사 총괄국장)

'96 인물



천리안 불교동호회 5대회장
박 수 호 씨

"올해는 천불동이 제2의 도약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활동하라는 회원들의 바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전자투표를 통해 천리안불교동호회(약칭 천불동) 제5대 회장(대표시삽)으로 선출된 박수호씨의 소감이다. 줄곧 30~40대가 맡아왔던 회장직을 20대의 청년이 맡게된 것은 박씨가 처음이어서 더 큰 활동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1일은 천불동 창립5주년으로 기념법회를 비롯 갖가지 대외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게시판에 올라온 회원들의 글과 경전에 대한 해석들, 미담들을 모아 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천불동

"전자포교 제2도약 이룰 터"

게시판 글모아 문집발행…소모임 활성화

로고와 로고송, 발원문들을 제작하게 된다.

"다른 종교동호회보다 회원들의 연령차가 큰 만큼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과 젊은 학생불자들을 유도하는 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씨의 올해 사업목표에는 그간 지진했던 지역모임을 부활시켜 정기법회를 주도하고 천불동내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자원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보은회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의 제작과 보급을 위해 결성된 BMC 소모임등은 젊은 불자들을 동호회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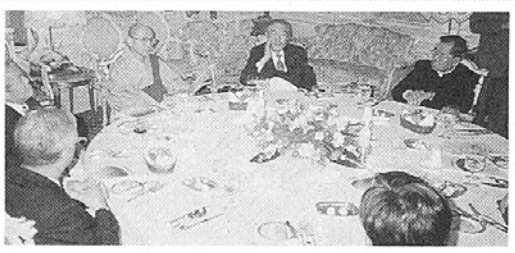
"타종교계와 비교해 볼 때 컴퓨터통신의 6개 종교동호회 가운데 불교계만이 종단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박씨는 "젊은 불자들을 이끌 수 있는 스님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남수미 기자



불교중흥·국태민안 위한 신년하례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윤)는 지난달 26일 롯데호텔에서 불교중흥과 국태민안을 위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흥(원효종 종정) 서봉(태고종 총무원장) 월탄(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법타(조계종 총무부장)스님 등 각종단 대표스님과 김우석(내무부) 김영수(문체부)장관등 정계대표, 62개 산하단체 회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6개 종교지도자 환경녹색선언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목사, 최근덕 성균관장, 김재중 천도교교령,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등 6대종교지도자들은 지난 1일 롯데호텔에서 '환경녹색선언문'을 발표,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정종택환경부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서 '음식남기지않기' '물아껴쓰기'등을 종교계 2대 환경보전 실천사항으로 정했다.



대구광역시 '부처님 되신날' 기념법회

대구광역시 부처님 성도절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원명스님)는 지난달 27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39년(음) 부처님 성도절 봉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원명스님을 비롯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 문희갑 대구시장, 김복동 국회의원, 박철언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부처님되신날을 봉축했다.



제11회 불이상 수상자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지난달 27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11회 불이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김호성, 이치영, 이승호, 해성스님을 비롯해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동대교수),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불이회 회원과 한불연 서울 구도회 회원등 모두 1백여명이 참석했다.

199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경주제일서점:772-2338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삼복서점:222-025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김해 오복당:36-210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공주신광서점:55-254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생각 삿되면 작품도 엉망돼요"

산문밖의 禪

조각가 류종민 교수



"조각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하나의 형상으로 깎고 다듬는 것이죠. 그 무엇을 조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만의 은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업장에 있을때면 내가 있다는 존재까지 모두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한 무아의 경지에 빠져버리기 위해서 말이예요."

그러나 조각을 하는 동안 조각가 류종민교수(중앙대 · 54)는 자신의 마음자리만큼은 서슬이 시퍼렇게 지켜가고자 애를 쓴다. 자신의 본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나름의 치열한 싸움인 것이다.

'평범 빚어내자'가 화두

"작업중에 잠시잠깐이라도 삿된 생각에 자리를 내주면 안되요. 영락없이 작품은 본원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일까? 그의 작품속에 나타난 세계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면서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신새벽의 법당에서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불성 덩어리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는 일에서 그의 예술혼은 생명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그 살아있는 예술혼은 그대로 그의 작품 속에 침투돼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는 작품을 굳이 부처의 세계와 접목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불교를 불교라는 언설로 똑부러지게 선을 그어 표현하지 않듯, 그저 그의 신앙세계와 일맥상통하는 그 나름의 선(線)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가 돌이건 나무건 브론즈건 재료에 구애되지 않고 작품을 빚어낼 수 있는 것도 세상사를 똑똑 부러지게 구별하지 않는 '달관한' 성격 때문이다.

평범을 빚어내는 예술의 세계, 그 세계는 류교수에게 하루 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신심이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되어 집착없는 무중력 상태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지난 93년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천강천월(千江千月). 천개의 강에 비추인 천개의 달의 의미를 조각품으로 형상화하면서 류교수는 광범을 빚어내는데 일생의 화두를 걸었다.

"일체함이 있는 모든 법은 꿈이며, 환(幻)이며 물거품이지. 그리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고 할 수 있지."

류교수는 가장 오묘한 예술도 결국은 평범함이라고 말하며, 천강천월은 그 관점에서 봐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현상계 또한 본질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요.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비칠 수 있는게 하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까요"라는 질문에 "강에 비춰지는 달이 환(幻)만은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환 뒤에 감춰진 본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천의 생명, 천의 인식이 본원에 닿아 있는 것을." 류교수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내놓았다.

'상아닌 상' 다듬기 금강경 수지독송하며 실습
'천강천월' 테마 붙들고 6년작업 '완성향한 닦음'

류교수는 한동안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발표해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류교수의 내면세계, 즉 그의 인간적 원형질은 불교와 인연이 되면서 작품으로 승화됐다. 신심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알게된 〈금강경〉은 그로하여금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알음알이가 얼마나 보것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 일은 이제 내게 있어서는 한 호흡이 되었고, 내 생명을 운용해 가는 리듬이 되었어요. 작업장에서 금강경을 몇번 독송하다가 해가 뜰 때쯤 법당에 올라가 독송할 때가 있는데 그때 법당 주위로 어디서 새들이 수없이 몰려와 지저귀죠. 그 순간 느끼는 환희는 마치 부처님이 쏟아부어주는 것 같아 형언할 수 없습니다."

돌대 위에 앉아 물위에 짜개지는
달빛을 보다가
하늘 위로 둥그런 하나를 본다
다르지 않게 다른 본체와 환영
내 의식이 그것을 만들 뿐
실은 본체와 환영의 유별도 없다
물속에 전개된 하늘은 하늘이 아닌가
천의 강, 천의 빛살은 본체가 아닌가
달의 어느 빛이 본원이라 하겠는가…

텅빈 곳에서 진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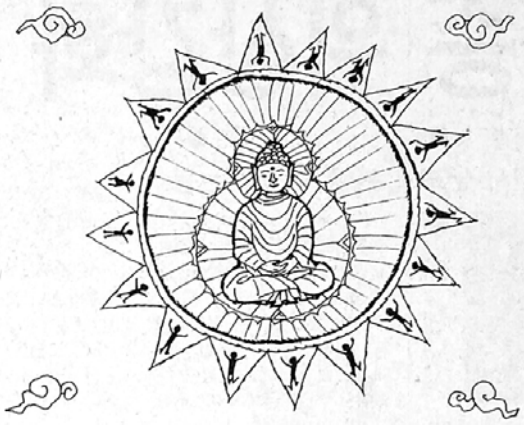
그의 작품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뿐 아니라 정신을 초월하는 현실세계가 공존한다고 평론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어느 한편에 서서 경계를 없애려는 예술가가 아니라 안과 밖, 겉과 속, 이쪽과 저쪽에서 동시에 경계를 없애나가려는 마음에서 그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천강천월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6년이 넘게, 아니 무한정이라도 붙들고 캐내겠다는 다부진 의욕이 온몸에서 솟구치고 있는 조각가 류종민 교수는 자기완성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오늘날의 작가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있는 것이 오히려 껍데기이기 때문이죠. 있는 이대로의 상태에서 없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텅빈 곳에서 우주와 인간의 진리를 찾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금강경에 '不取於相'이라 했던가. 조각가는 그의 작품 속에 상을 담기 마련이다. 체념이나 포기없이 새벽의 기운이 움트는 새벽 3시면 늘 금강경을 독송하는 일관된 마음으로 작품에 임해 온 조각가 류교수는 다듬고 깎으며 작품에 상을 담으면서 도대체 어떤 상 아닌 상을 또 노려보고 있는 것일까.

도필선 기자



삽화 · 이기선

하나되는 마음에서 '빛' 나투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⑥0 · 〈끝〉

광명(光明)

현대불교의 독자에게 60회 동안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귀한 지면을 빌려 써 보았다. 문필의 재주가 미약하여 좋은 글을 보내지 못해 독자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글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체 벗겨버렸다. 나신이 되어 겨울 햇살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주변의 공기가 차고 시리어 얼어붙은 몸뚱이가 되어 동상으로 병들었다.

다시 봄이오고 따뜻하게 되면 좋은 얼굴로 독자들을 만나 볼까 한다.

화엄 바다에 나선
신새벽 찬바람
촛불 가물거리게 하는 물결
동해 햇살이 비로광명이라

우리 모두 새해
한손 천손 만만 손
하나로 합장하며
통일이여 일심을
화합이여 정의를
청정이여 평등을
원만 성취하기를
비옵는 손 마음
하나이라

한손 천손 만만손
화엄바다에 나선
촛불처럼 비로광명이 되어
온 법계 우주찰토
극락으로 화광세계도
장엄하고 화엄하세

나는 불교의 우주관을 숭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조그만 지구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나락이 얼마인가. 매일 매일 죽이고 부수고 하는 싸움과 질곡,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아수라의 몸부림,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삶이라고 하니 신새벽 찬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촛불 밝혀 들고 비로광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인간은 무지하고 우매하다. 그 무지와 우매로서 난폭한 폭행을 일삼는다. 새벽바람에 촛불을 들고나와 저 우주를 바라본다. 경이로운 목숨이

"통일이여 일심을 화합이여 정의를 청정이여 평등을"

조아리고 절하고 있는 법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손 한 손 만만 손 모두가 일여부동(一如不動)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의 손들은 꾸부러지고 빽빽하여 자연스럽지 못한가. 곱게 접고 펴는 합장을 버린 것이다. 한손을 모두어 합장해 보아라. 그곳에 마음도 하나되어 삼매의 법열을 맛보게 될 것이다. 손을 맞잡지 못하는 마음은 아직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까닭이다. 통일 · 화합 · 청정은 한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이며 전단향이다.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는 연꽃, 전단향이 없다면 지옥이고 나락이다. 아침이면 합장하고 낮이면 절하고 밤이면 기도하자.

한마음 되기를 원세우고, 정의가 이룩되게 참회하고, 평등을 맞잡는 예경을 올리자. 일심보다 좋은 마음이 어디 있으며, 정의보다 빛난 햇빛이 어디 있는가. 사람 사람 모두가 평등으로 사는 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 무상정등정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더 위없는 것은 최상중의 최상이다. 최상은 으뜸이다. 으뜸은 하나이다. 하나는 절대가 아니라 무등등의 세계이다. 이것이 정등이다. 정등은 바로 한가운데인 평등인 것이다. 이 평등의 마음이 하나로 알게되고 사무친 자리가 깨침이다. 우리는 확철하게 깨친 자리에서 비로광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광명의 여래성이 밖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빛은 나의 마음에서 투광되는 광파(光波)라고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독자들과 얼마만큼 하나되었는지 모른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여래의 빛이 솟구쳐 오르게 되면 연꽃옆에서 수정이 될 것이고 전단향 뒤에서 자하놀이 될 것이다.

'오늘의 불교' 이것은 어제와 내일을 이어가는 지금의 점이다. 이 점이 태양의 광성(光性)이 되어야 한다. 빛이 축적되면 오늘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읽어 주신데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대불교의 모든 분들에게도 합장한다.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 · 정진 · 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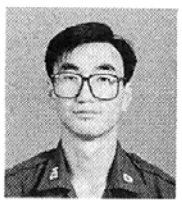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2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2월 26일 (월)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

군승 위상강화 병영포교 '열쇠'

이동배법사 군포교 관련 첫 석사논문



◇이동배법사

군승문제등 군포교의 올바른 정책수립 과제를 논한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동배 군법사(9사단 충무대)는 96년도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군포교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군포교 활성화는 군에 대한 이해, 군승의 위상강화, 종단의 재정지원, 군포교에 대한 이념정립 등 이 네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군승의 위상문제'. 군목과 군신부가 군인과 성직자로서의 특수선교담당자라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비해 군승은 군에서는 물론 종단내에서조차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것은 장병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군승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법사는 그 해결책으로 전역후 군승에 대해 포교사로서의 지위부여와 '실천의 장' 마련을 제시했다. 본사급 사찰에 배치키로 한 상임포교사에 일차적으로 군승출신을 임용하고, 일선의 포교사 충원에서도 군승출신의 제도적 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법사는 또 군승에 대해 '교화승(敎化僧)'-전문적으로 포교와 불교사업에 전념하는 교역자-으로서의 지위부여를 위한 종헌법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중앙포교사로서의 지위부여를 위한 종단의 검토, 수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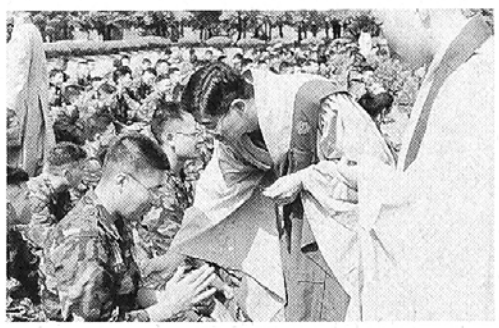
종단 재정지원·지휘체계 확립
전역후 포교사 임용 제도화를

이와 함께 이법사는 군승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군승단 차원의 군포교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정책에 의한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승에 대한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으로써 현·전역을 포함하는 관리 및 지휘체계가 우선 확립돼야 하며, 이에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법사는 또 군승대표기구 설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재정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종단차원에서 군법당 가운데 특히 환경이 열악한 부대를 선정해 차량 및 일정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군법당 건립기금 배정, 특별 포교기금의 군포교 지원 방안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군포교 이념정립을 위한 군과 불교와의 뚜렷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다깊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군승의 위상강화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사진은 논산훈련소 훈련병 수계식 장면).

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문 세 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큰딸은 직장엘 나가고 둘째·셋째는 고등학생입니다. 큰애가 외박이 잦는등 생활이 문란한 편인데 동생들까지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일러도 그때 뿐입니다. 아이들 생각만하면 이젠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이은주·서울 노원구〉

답 늘 말씀드립니다만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건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듣고 또 외박이 잦다해서 육신을 얽어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애길해도 듣질 않는다니 그야말로 우이독경인 셈인데 보살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듣는 까닭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관해 보세요. 왜 그토록 애절하게 애길했는데도 막무가내인가. 주인공은 그 까닭을 알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이 관해 보세요. 어쩌면 보살님의 결과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장애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누구보다도 더 잘 통신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설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 마음에 불이 들어오면 자식 마음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점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치가 그러한가보다 하는 정도로는 안됩니다.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철석같은 믿음이란 결과를 분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스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믿고 맡기고 관하는데 왜 바라던 결과가 안나오는가 하는 식이라면 그건 진정으로 믿고 맡긴게 아닙니다. 믿고 맡기는 그 자체에 사무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던 결과가 안 이뤄지더라도 그 또한 법이니 다시 놓고 또 믿고…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신이 되니 아이들 마음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비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이 나면 그것 또한 놓고 가세요. 인욕이란 참아서 인욕이기전에 둘이 아닌 도리, 공생 공식 공체 공심의 도리를 믿고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인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에 되돌려 놓고 관하는 것 또한 인욕입니다.

실업계 진학해도 스님될 수 있나요

문 장차 스님이 되고픈 중3 학생입니다. 지금도 연로하신 스님의 시중을 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입원서를 쓸 때에 선생님이 막무가내로 실업계로 가라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인문계에 가서 나중에 동국대 불교학과를 진학하려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인문계는 정원미달이라서 제뜻대로 원서를 쓰지 못한게 한스럽습니다. 장차 동국대로 갈수 있을런지요.

〈변근희·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답 물이 흐르는 것을 보세요.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돌아 흐르지요? 참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서 무엇보다도 물러서지 않는 꾸준한 정진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장차 스님이 되고 싶다니 더욱이나 정진을 해야지요?

인문계를 가려했다가 본의 아니게 실업계로 가게되었다니 안타깝겠지만 거기에 가르침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처지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원입니다. 꼭 스님이 되겠다, 가르침을 배우겠다 하는 원을 세웠으면 믿음을 가져봐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 욕심은 여늬 욕심과 달리 원이요 원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한 물러서지 않는 정진이 따를 것이고 정진하는 한 그 원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방편에 마음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세요. 암, 되고말고요.

장애인은 왜 태어나는지

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도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일까요? 또 산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정계자·경남 창원시〉

답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 오늘에 이르도록 얼키고 설킨 인연줄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연의 씨앗이란 결코 썩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뿌린대로 거두는 이치와 운명은 다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딱 굳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업이란 지금 여기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입력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때 열쇠를 발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에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모의 한 생각 한 생각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이에게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산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신줄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뱃속의 아이와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법주사

천왕문

帝釋天王慧遙明
(제석천왕혜감명)
四州人事一念知
(사주인사일념지)

제석천의 애절한 사랑 찬미

哀愍衆生如赤子
(애민중생여적자)
是故我今恭敬禮
(시고아금공경례)

제석천왕의 지혜는 밝고 밝아서
온 세상의 일을 한 생각으로 다 아시네
중생을 친자식처럼 애처롭게 생각하심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경하고 예를 올립니다

해설 제석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이다. 제석궁에 주석하며 4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중생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마귀군을 정벌한다는 하늘임금이 바로 제석왕이다. 제석천은 제석이 사는 도리천을 말하므로 제석천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많은 사찰의 천왕문 주련들이 4천왕의 위업 등을 노래한 반면 법주사 천왕문 주련에는 4천왕은 물론 32천을 다스린다는 제석천왕을 찬탄하고 있어 흥미롭다. 앞에서 제석천왕이 하는 일을 소개했듯 제석천왕은 불법에 귀의한 중생을 보호해 준다는데서 찬탄의 마음이 출발되고 있다.

모든 중생을 친 자식처럼 애처롭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곧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발현이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애처로움과 슬픔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절절한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깨달음의 저 건너편에서 불법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는 중생의 모습이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제석천왕에게는 애처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애처로움은 곧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안온케 하는 것이니 공경하고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안동 경안중 교사〉

보살의 善意志

미래 정신혁명 '원동력'

김용운교수 '수학자의 문명관' 통해 주장

환경파괴로 인해 현대 인류역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신혁명과 미래의 희망에 대한 담보는 '보살에 대한 믿음'이며, 이 보살의 역사관이 민족발전을 위한 대중시대의 역사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운교수(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최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행한 〈현대과학사상과 환경문제〉에서 '수학자의 문명관'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보살의 선(善)의지'가 미래사회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김교수가 말하는 '보살'이란 자기자신을 살리고 싶은 자신의 의지인 동시에 민족단위로 볼 때는 민중의 무의식 속에 있는 선의지라는 것.



◇김용운교수

역사 움직이는 핵심요소
"환경파괴 내 보살 파괴"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원형이 곧 보살이며, 이 원형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이 선의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내 생명을 부수는 것이요, 내 보살을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기적이라는 것 역시 보살의 선의지가 작용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바로 이 생명력을 설명해 주는 보살의 선의지는 카오스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 바로 카오스 사상이라는 것.

김교수는 이 카오스 사상중 오늘 서울의 종로거리에 나온 나비가 일으키는 작은 바람 때문에 내일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예로 들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보살의 역사관을 설명했다.

즉,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이 원동력이 개인의 보살, 민족의 보살이 지니고 있는 선의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역사관을 모두 부정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은 보살의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 펴내

독립기념관이 최근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을 한데 모은 '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국배판 크기에 5백58쪽인 이 책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4년동안 열린 학술대회 발표논문 22편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평 및 종합토론을 담고 있다. (0417)60-0411

海東佛教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7기 佛教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6년 1월 8일 ~ 2월 15일
■ 개강일시 : 1996년 2월 15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대한불교정토회 포교사 양성과정 1996년도
본원불교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과목과 모집인원

과 정	모집인원
입문과정 (10강좌)	40명(통신강좌 40명)
전문과정 (20강좌)	40명(통신강좌 40명)

2. 지원 자격
(1) 정토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자 (2) 원효사상을 연구하려는 자
(3) 불교포교에 원력을 세운 자 (4) 본원의 입문과정을 이수한 자
(5) 본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불자

3. 원서 교부
1996년 2월 15일까지 전화나 팩스로 주소, 성명 명기하여 신청
전화 : 02-997-6904~5, 906-6082 / 팩스 : 02-997-6905, 02-983-8017

4. 특 전
1) 전문과정 수료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본원포교사로 임명
2) 본원포교사가 되면 사원사를 중심으로 포교사로 활동
3) 2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사찰 운영 지원

5. 본 교육원 2년 과정의 개설강좌
(1) 입문 과정

전반	불교사입문, 불교교리입문	후반	불교경전입문, 불교신앙입문

(전후반 각 3개월의 6개월 무료강좌임)

(2) 전문 과정

1학기	• 無量壽經, • 金剛般若經, 易行品, 十問和淨論, 唯識思想
2학기	淨土三部經, • 大方无佛華嚴經, 淨土論, 無量壽經宗要, 中觀思想
3학기	法華三部經, • 淨土論註, 金剛三昧經論, 選擇本願念佛集, 如來藏思想
4학기	• 法華經, 安樂集, • 大乘起信論疏, 選擇本願念佛集催邪論, 教行信證

* 표는 필수과목
본회의 포교사는 입문과정, 전문과정의 • 마크는 포함 12과목 이수 해야함
전과정 야간 강과이며 통신강좌는 시청각 교재와 년 2회의 출석교육 실시함

6. 강사진
(전대학 교수 現大韓佛教 淨土宗宗正)
(전대학 교수 現往山寺祖室)
(前佛光會 會長 現安國寺祖室)
(現光明寺 住持)
(전동아대학교 교수 현명예교수)
(전영남대학교 교수 현명예교수)
(전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현명예교수)
(승려 현대불교사대학교 종교학교수)
(승려 현일본龍谷大學大學院 불교학교수)
(現 西龍寺住持)

대한불교정토회 부설
본원불교교육원
142-073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2-43 정빈딩 5층
142-800 서울시 도봉우체국 사서함 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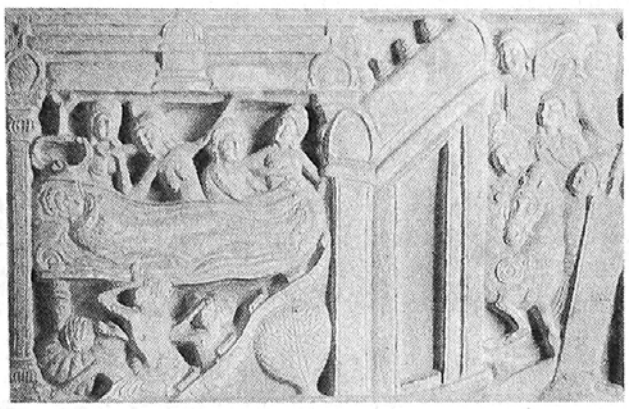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싯다르타 태자는 서쪽 성문 밖에서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된다. (3~4세기 작품. 나가르주나 콘다 고고학 박물관 소장.)



◇나무아래서 밭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싯다르타의 모습. (2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페샤위르박물관 소장.)

보르헤스의 ④ **불교강의**

전설상의 붓다 〈2〉

북문 밖 사문 얼굴 보고 출가 결심

산속에 들어가 6년고행과 단식에 몰두
고행의 無用을 깨달은 싯다르타는
보리수 그늘아래 자리잡고
정각을 얻을 때까지 명상에 잠겨

결혼 후 10년의 꿈같은 세월이 흘렀다. 태자는 자신의 궁궐에서 8만4천의 궁녀들에 둘러싸인 채 쾌락에 탐닉하고 있었다. 싯다르타는 어느날 아침 마차를 타고 궁을 나왔다.

태자는 동쪽 성문 밖에서 지팡이를 짚고 손발을 떨며 머리카락이 마른 풀처럼 빛이 바래고, 지팡이처럼 바짝 마른 등이 굽은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누구인지 묻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저사람은 노인(老人)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이 늙게 된다"고 대답했다. 남쪽 성문을 나서자 이번에는 문둥병에 걸려 몰골이 흉측한 사람을 보았다. 마부는 설명하길 "그 사람은 병자(病者)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병고(病苦)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서쪽 성문 밖에선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저 사람은 사자(死者)인데 죽음은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겪을 숙명이지요"하고 마부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쪽 성문 밖에서 탁발을 하러 다니고 있는 수도승을 보았는데 그는 생사를 초탈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후기의 전설에는 이 네 사람이 천사의 화신이라고 한다) 마침내 그 출가사문(出家沙門)의 얼굴에서 싯다르타는 길을 발견했다.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에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전갈이 왔다. 태자는 궁으로 돌아갔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그는 후궁을 둘러보다 잠들어 있는 궁녀들의 모습을 보았다. 한 궁녀는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궁녀는 머리가 어지럽게 헝클어진 채 코끼리에게 밟힌 상을 하고 있었다. 잠꼬대를 지껄이는 궁녀와, 온몸에 종기 부스러기가 난 궁녀도 있었다. 모두가 죽은 사람 같았다. 싯다르타는 혼잣말을 했다.

"유한한 세계에서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불결하고 흉측스럽기까지 한 존재들이다.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곁에 장식한 노리개에 흘려서 탐심을 낸단 말이야."

태자는 야소다라의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아기와 산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일 저 팔을 치우면 아내가 깨어날 거야. 성불한 뒤 돌아와 내 자식을 안아보리라."

싯다르타는 왕궁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달렸다.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말은 발굽을 땅에 닿지 않고 달렸다. 강을 건넌 뒤, 수행하던 시종에게 말과 옷을 벗어주며 작별했다. 싯다르타는 칼을 집어 머리칼을 잘라 허공으로 던졌다. 천신(天神)들이 달려와 머리카락을 유물처럼 주워 모았다. 말은 슬피 울며 돌아가서 곧 죽었다. 수행승의 모습을 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황포(黃布) 3조각, 요대, 단검, 탁발을 위한 검, 바늘 그리고 광주리 하나를 주었다.

싯다르타는 7일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뒤 일어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숲속에 사는 은둔자들을 찾아 보았다. 풀잎으로 엮은 옷을 입은 이도 있었고, 나뭇잎으로 중요부분만 가리고 있는 이도 있었다. 모두 과일로 연명하였는데, 하루 한끼 먹는 사람, 이틀에 한끼 먹는 사람, 사흘에 한끼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물, 불, 태양 혹은 달에게 경배를 올리고 있었다. 하루종일 한발로 서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시덤불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싯다르타에게 북쪽에 살고 있는 세분의 스승에 대해 말해 주었다.

세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지만, 싯다르타는 만족할 수 없었다. 고행을 참아내는 일로써 수행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고행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스승은 싯다르타에게 무념, 무상의 경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는 스승과 하직하고 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났다. 세번째 스승으로부터 그는 사유(思惟)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경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출가한 궁극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6년동안 고행과 단식에 몰두했다. 사나운 비바람과 강렬한 햇살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천신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싯다르타는 마침내 고행이 무용(無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강물에 목욕하고 죽을 조금 먹었다. 그의 몸은 잃어버린 기력과 아시타가 확인했던 상호들과, 후광을 되찾았다. 새들이 그의 머리 위를 날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보리수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정각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결심을 한 뒤, 명상에 잠겼다.

편역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미 영 순 〈중국 흑룡강大 교수〉

불교를 믿는다는 야릇한 아이들을 구경갔다가 지도법사님께 발목을 잡혔다. 묘유(妙有)의 공론(空論)으로 날 무참하게 깨뜨린 법사님은 맹물이(죄송) 아니셨다. 그때, 알궂은 의상 떨쳐입고 1500년이나 혹세무민하는(죄송) 사이 제법 그럴싸해진 게라고 생각하면서 백기를 들어 가르침을 청했다. 8400이나 된다는 장광설의 허(虛)를 깨부실 꿍꿍이로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징그럽게 두꺼운 경전을 팔이 빠지지않을 만큼 빌려갖고 나왔다. 절문을 나서며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는 걸" 단발머리를 팔랑거렸다.

이렇게 불교를 깨기 위해 경전읽기를 시작했다가,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치라'는 선(禪)에 이르러 불교를 신앙으로 선택했다. 과과본능이 남보다 특별히 강한 모양이라고 혼자 웃었다. 이러저러 이제 30년이 넘었다. 목숨 건 듯 절도 선(禪)도 해보았고, 48계 받아 팔뚝에 하얀 도장도 찍혔지만, 자성(自省) 컨대 형편없는 날나리 불자임이 틀림없다.

공포(無有恐怖)이다. 대승 수행의 제일덕목은 보시라고들 하며 그 뜻은 베풀다·나누다라고 한다. 그러니 난 보시를 해본 일도 없는 것 같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것을 잠시 빌려쓰는 텃수에 내것이 있어야 베풀고 나눌게 아닌가? 난 그냥 회향이나 환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 죽은 뒤 쓸만한 장기는 필요한 이에게 주고 남는 건 수련의 실습교재로 쓰라는 건 육신회향일 뿐이다. 이 사회에서 얻어진 지식, 몽땅 돌려준대도 밑질 것이 없다. 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껴두어 무엇하랴.

불자로 자처는 하면서도 아무리 따져보아야 불자다운 일이라곤 하는 게 없으니 스스로도 딱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한가지만은 꼭 이루어

불심으로 실명극복… '하심' 삶 목표

"죽은 뒤 쓸만한 장기 필요한 이에게 주고파"



법당에 들면 주존불께만 겨우 3배 올리는 게 고작이고, 산신각·칠성각에 들면 미술학도이기나 한듯 탱화 구경만 하고 나온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내 이름 적은 꼬리표 붙여본 일 없고 백중기도 말고는 기도라고 올려본 기억이 없다. 개구리 와글대듯(죄송) 소란한게 싫어서 칭명염불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오나 가나 난 불자노라고 광고, 광고하며 다닌다 염치없이.

나는 삶의 에너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전한다.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내딛는 힘을 그 가르침에서 빨아들여 실명(失明)을 이겨냈다.

불교에 대승으로의 발전이 없었다면 난 불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생이 아파서 보살이 아프다는 자비에 탄복하여 불자가 되었으면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한다. 아직 구보리 아닌 구지식(求知識)에 머물러 있고 보리가 없으니 무엇으로 화중생을 하랴. 다만 구름이 모여 비로 쏟아짐을 믿으며 지식이 쌓여 보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나마 얄팍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하려 애쓰는 건, 동병상련(同病相憐)에서 나의 처방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랄까? 지범개차(持犯開遮)하라는 말씀을 너무 잘 배워 계를 지키지 않고도 무가애(無罣碍)에 무유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쉽질 않다. 방심(放心), 마음을 아주 놓아버리는 경지까지는 못가고 하심 하나만이라도 해내고 싶은데… 희망사항이기만 한 모양이다. 귀국한지 얼마 뒤 은사에서 당신의 법회에 나오라고 하셨다. 명사들의 법회, 운전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데리고 다니마 하셨지만 난 하심의 연습장으로 청년회를 택했다. 대학 나온 이도 별로 없어 말 한마디 하기가 아직도 조심스럽다. 교수니 박사니 하는 단어에 귀가 익은 나에게 딸도 못되게 어린 친구가 "언니, 밥 먹었어?" 소름이 끼쳤다. 열살까지는 친구라나, 말놓고 대드는데는 목이 막혀 입이 딱 벌어졌다. 무엇하자고 나와 그리 비교는 하는지, 박사보다 잘난 저를 발견하고 즐거운 이와 계속 담소를 하지면 입술에 경련이 났다. 세월이 가는 동안 차츰 익숙하게 되었고, 하심을 훈련시켜주는 이들을 고마워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하심이 닦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절 안에서는 반갑게 그들을 대할 수 있지만 절 밖에서는 그들을 피하기에 바쁘다. 나를 아는 누군가가 보게되면, 도대체 얼마나 체신없이 굴었길래… 혀차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이다. 이따금은 이런 이중구조의 하심을 닦을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정말 하심을 이루겠다고 오늘도 무릎이 닳게 절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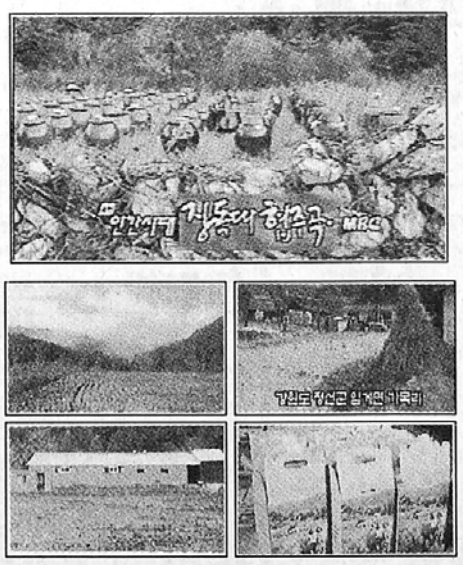
신토불이 정신에 이름하야 정선 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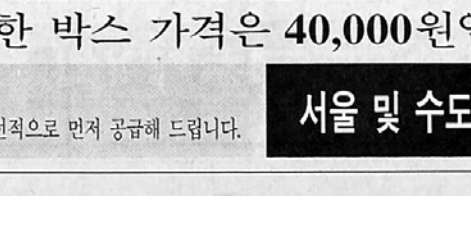
MBC 「신인간시대」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우리콩 메주

강원도 깊은 산골, 굽이굽이 돌아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조용한 산골마을에 **신토불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신토불이** 정신을 뭇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돈연스님과 가목리 농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햇콩으로 쑨 메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돈연스님과 정선 임계 가목리 농민들이 함께 만든 정선 메주를 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것을 간직하려는 가람유통은 **2천만** 불자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놓여지기를 기원하면서 山寺의 청정 무공해 메주 보급을 위해 願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선메주의 특성

- 정선메주는 돈연스님이 6년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골마을에서 농민들과 직접 콩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햇콩으로 만든 메주입니다.
-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자라는 콩으로 가마솥에 삶고 짚으로 묶어 매달아 말린 다음 다시 띄운 순수한 전통식 토종메주이므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 메주 한 개의 무게는 1kg~1.3kg입니다. 손으로 다듬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으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박스는 소두 한말이 조금 못되며 한 박스의 메주로 된장 10~12kg, 간장 8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의 효능

- 양조간장과는 달리 전통의 된장, 간장은 암예방과 중금속 오염의 해독능력까지 겸비한 수준높은 자연식품입니다. 냄새가 독특하여 유럽인이 즐겨먹는 전통치즈의 독한 냄새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구수하고 향기롭습니다.
- 잘 띄운 발효메주에는 수백가지의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해 단백질을 생산하는 효모균이 집단으로 서식, 아미노산을 제공하여 된장국은 위기능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적추와 뇌기능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전통식의 된장, 간장은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내세울 첨단식품입니다.

◉ 메주 한 박스 가격은 **40,000**원입니다 ◉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된 메주는 언제든지 교환해 드립니다.
●큰 장독 600개에 담은 햇된장 및 햇간장은 6월에 사실 수 있으나 그 전에 미리 예약 주문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급처 가람유통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D 2층
전화 : (02)720-5121, 736-5108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5)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②

諸仁者 若也於斯體究 的不虧人
제인자 약야어사체구 적불휴인
若也不肯承當 向後 深恐費力
약야불긍승당 향후 심공비력
山僧 行業無取 忝主山門
산승 행업무취 첨주산문
豈可坐費常住 頓忘先聖付囑
기가좌비상주 돈망선성부촉

모든 어진이여 만약 여기서 몸소 겪어 궁구하면 적실히 사람을 이즈러뜨리지 않거니와(근본에 딱 계합할 것이나)
만약 즐겨 감당하지 않는다면 향후라도 힘만 낭비할까 두렵노라.
산승(부용선사 자신)은 행업에 취할 게 없으나 욕되게도 산문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앉아서 상주물을 허비하며 역대 조사·성인의 부촉을 까맣게 잊으리오.

今者 輒效古人 爲住持體例 與諸人議定
금자 첩효고인 위주지체례 여제인의정
更不下山 不赴齋 不發化主
경불하산 불부재 불발화주
唯將本院蔣課 一歲所得
유장본원장과 일세소득
均作三百六十分 日取一分用之
균작삼백육십분 일취일분용지
更不隨人添減 可以備飯則作飯
경불수인첨감 가이비반즉작반
作飯不足則作粥 作粥不足則作米湯
작반부족즉작죽 작죽부족즉작미탕

이제 문득 옛 사람이 주지된 법도와 예절을 본받아서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노니 다시는 산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재에 나아가지도 않고 화주도 내지 않으리라.
오직 본원 장원의 소득물을 가지고 한해의 소득으로 하여 360등분으로 고루 나눠 하루에 한 몫을 취해쓰고 다시 사람수의 더하고 덜함에 따라 고치지 않고 가히 밥을 준비할만 하면 밥을 짓고 밥 짓기에 부족하면 죽을 끓이고 죽 끓이기에 부족하면 미음을 지을 것이다.

新到相見 茶湯而已 更不煎點
신도상견 다탕이이 경부전점
惟置一茶堂 自去取用
유치일다당 자거취용
務要省緣 專一辦道
무요성연 전일판도
又況活計具足 風景 不疎
우황활계구족 풍경 불소
花解笑 鳥能啼 木馬長鳴 石牛善走彫
화해소 조능체 목마장명 석우선주
天外之青山 寡色 耳畔之流泉 無聲
천외지청산 과색 이반지유천 무성
嶺上 猿啼 露濕中宵之月
영상 원체 로습중소지월
林間 鶴唳風回清曉之松
림간 학루 풍회청효지송
春風起而枯木 龍吟 秋葉墜而寒林 華發
춘풍기이고목 용음 추엽조이한림 화발
玉階 鋪苔蘚之紋 人面 帶桃霞之色
음진 포태선지문 인면 대연하지색
音塵寂爾 消息沈然 一味蕭條 無可趨向
음진적이 소식침연 일미소조 무가취향

(까니를 지나)새 손님이 찾아오면 차로 대접하되 다시 점심을 짓지말라.
오직 한 찻간을 마련해 스스로 가서 취해 쓰게 할지니 힘써 인연을 줄이고 한 길로 도 닦기에 힘쓸지어다.
또 하물며 생활해 나갈 계책이 구족하고 경치도 성글지 않음에 있어서랴.
꽃은 피어 방긋웃고 새 소리 즐거운데 나무 말 긴 울음에 돌 소가 달음질하네 하늘 가 푸른 산은 아득히 멀어 귓가에 흐르는 물 소리없고
원숭이 울음소리 산 마루를 넘는데 깊은 밤 달빛은 이슬에 잦네
숲 속 학의 긴 울음소리에 새벽 맑은 바람 솔가지를 흔들고
봄 바람 건듯부니 고목은 용처럼 울고 가을 낙엽지니 찬 가지엔 눈 꽃이 만발했네

山僧 今日 向諸人面前
산승 금일 향제인면전
說家門 已是不着便
설가문 이시불착편
豈可更去堂堂入室 拈槌竪拂
기가경거승당입실 염추수불
東喝西棒 張眉努目 如癭病相似
동할서방 장미로목 여간병상사
不惟屈沈上座 況亦孤負先聖
불유굴침상좌 황역고부선성

산승이 오는 여러분 면전을 향해 가문의 종풍을 설한것이 이미 붙일곳조차 없으니 어찌 가히 다시 법당에 오르고 선방에 들어가 추(북채)를 잡고 불자를 세우며 (임제·덕산처럼) 동으로 할, 서로 방을 치며 눈을 치뜨고 부릅떠서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하리오 (그것은) 상좌를 기를 못펴게 할뿐아니라 하물며 선성까지도 욕돌 저버리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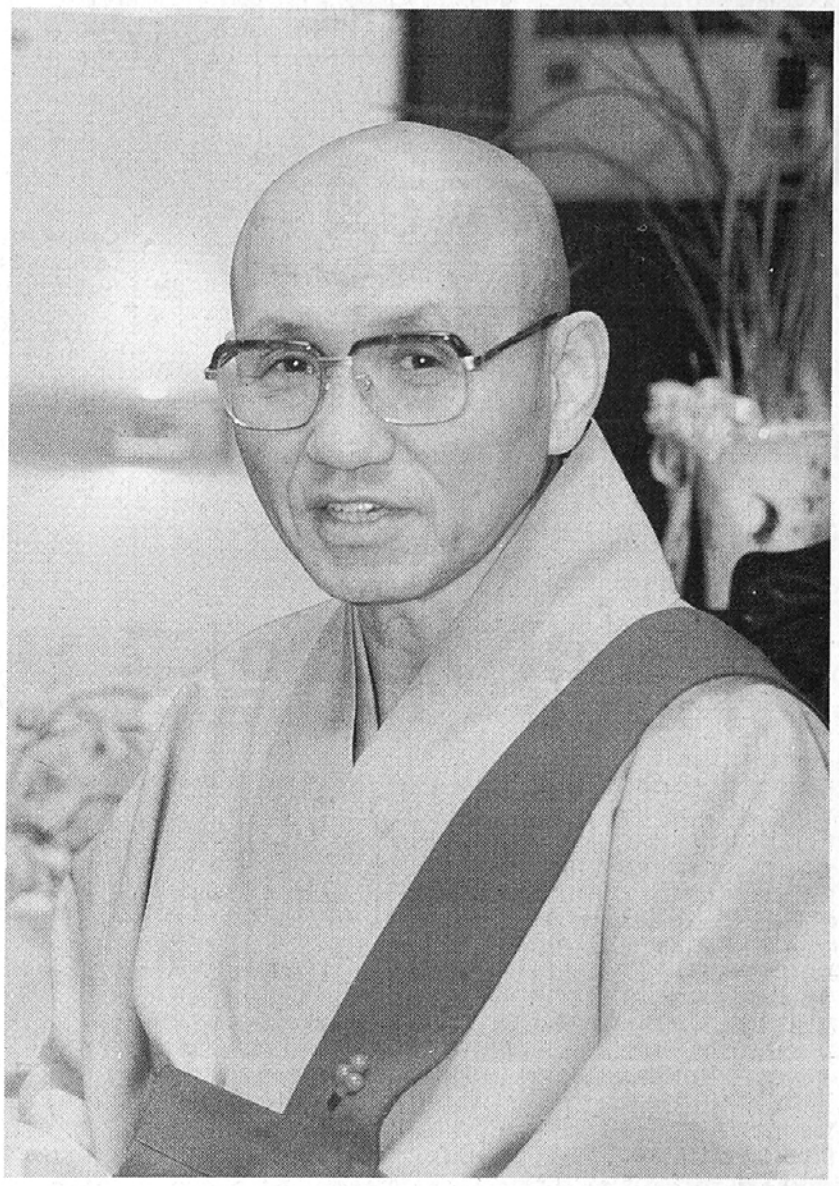
龍眼

"한해 소득 360등분 고루 나눠 하루쓰고 옛 사람 법도·예절 본받아 몸소 궁구하리"

★ 지상법석

"부처행은 세간 고통을 원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약력
· 1954년 · 56년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 · 비구계 수지
·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 자비의전화 총재,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평통 자문위상임위원, 공추불회장 평물협회장 승가학원이사장 등.

불교인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불은 인식의 전환인가, 아니면 행동의 전환인가' '수행을 해야 성불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경전에서는 무량겁동안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한 후에 성불한다고 하는데, 나는 금생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성불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먼저 경전에서 성불에 관한 실례를 찾아보면, 〈열반경〉에서는 3천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금생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무량원겁 전에 이미 불도를 성취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나투고, 영원불멸하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래성불하신 불신(佛身)은 일 개인이 아니라, 우주전체이므로 영원하듯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며,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로서 행동할 성품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환언하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인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구원겁에 성불한 본불,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 순금이 흘러 나오듯 자신 믿고 법을 믿고 게으르지 않으면 성불

"윤회 세계인 6범과 해탈 세계인 4성은 자유의지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실성의 본불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편으로써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어 성불했으며, 영원불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편으로 열반에 들었다고 하였으며, 「방편품」에서는 유연심만 갖더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불탑에 예배하거나, 사소한 신행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 때 모래로 불탑을 만들지라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각경〉의 「금강장보살장」에서는 일체 부처님의 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망령된 윤회와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교 근본교리의 모태가 되는 〈아함경〉에서는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요. '만일 여래가 세상에 출세해도 출세하지 않아도 이 인연법은 상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연법은 '연기(緣起)의 이법(理法)'을 뜻하는데, 이것이 교리적 발전을 거듭하여 대승불교의 '법신상주설 구원성불사상 본래성불사상'으로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체존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연에 의해 생멸변화하고 이합집산하므로 독자성·항존성이 없고, 반드시 상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성'의 속성을 띄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자성'을 〈반야경〉계통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공' 역시 일체존재는 독자성·항존성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자기의 존재성이 다른 것에 있다는 말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물의 존재성이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면, 역으로 이 세상 일체의 존재성이 나에게도 포함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는 "〈법화경〉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뒤집어서 '성구(性具)사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의 독자성이 없이 텅비어 있다는 것이 '공사상'이며, 일체의 존재성이 나에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구사상'입니다. 따라서 〈법화경〉이 〈반야경〉의 '공사상'을 역으로 나타내었다고 본 것입니다.

불교가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 '성구(性具)' 등을 가르치는 것은 일체존재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명을 지혜로 바꾸고 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낮은 수행의 단계로 부터 가장 완전한 부처의 단계까지를 열 가지로 나눕니다. 10계(十界), 즉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 불(佛)입니다. 이 10계에 '성구사상'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천관사):대웅전 수미단 응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 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9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선제 복용 기아·공복감이 없다.
• 뜸초, 해독차 열분·자연탕·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엄불산대수련·선관산대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할고 나면 정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엔리로바이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위
안내
☎ (0593)34-1115-6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신설 포교당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불은의 도시 대구에 부처님의 집이 비어있습니다. ○○스님께서 발심하여 포교당 불사를 완료하였으나 급히 스리랑카에 유학하실 기회가 생겨서 출국하시고 없는 관계로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주소■ 대구 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有)
■전화■ 053-638-0067, 053-556-8429 (1~4시까지)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젊은 날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서리서리 서려져 저 허공에 메아리처 울려 퍼지리라●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완남음식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논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 반 출 판 사 ☎ 02) 3673-0224
※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지상법석

안락으로 바꾸는 일”

“지옥이라도 부처의 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이고
부처도 지옥을 행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이다”

을 응용한다면, 부처(佛)는 지옥을 자기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도 부처의 행(行)을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이고, 부처도 지옥의 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입니다.

부처가 지옥을 포함하고, 지옥이 부처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옥과 부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는 지옥의 성품을 쉬고 부처의 성품을 행하는이요, 지옥은 부처의 성품을 쉬고 지옥의 성품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불의 길을 짐작하는데, 한문으로 ‘성(性)’ ‘종성(種性)’ ‘수(數)’ ‘대(大)’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처의 성품 속에는 아홉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정사(正邪)와 선악(善惡)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고 지옥을 극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중생도 부처의 성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석가운데 금은 보이지 않으나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 순금이 흘러나오는 것과 똑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토대로 불성을 갈고 닦으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욕탐의 생활에 자유의지를 맡겨버리면 부처의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윤회하는 고통의 세계인 6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 열반해탈의 세계인 4성의 길로 가는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 세존께서도 인간의 고귀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당시의 ‘우연론’ ‘신의론’ ‘숙명론’등을 부정하여 중생들이 잘못된 사상에 의해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자기자신을 믿고 법을 믿고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 속에 10계가 모두 들어 있고, 지옥 속에 부처가 포함되어 있음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성품을 쉬고 부처의 성품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지옥의 행동을 하면, 그 깨달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의 행동을 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옛 조사스님들께서 “찰나 동안 부처의 행동을 하면 찰나 동안 부처이고, 하루 동안 부처의 행동을 하면 하루 동안 부처이며, 영원히 부처의 행동을 하면 영원히 부처이다”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맨처음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얻은 셈입니다. ‘깨달음이란 인식의 전환인 동시에 행동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불해야 하는가, 부처는 지옥을 비롯한 고통의 악도(惡途)를 쉬고 선도(善途)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극락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부처에게는 내외가 따로 없으며 출세간과 세간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자기의 고통입니다. 부처의 행은 세간의 모든 고통을 안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행을 하려는 사람은 중생을 위해 일을 해야합니다. 깨달음을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기 위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세간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처가 있고, 그 부처 속에 중생세간이 있습니다. 즉 불범동거(佛凡同居), 부처와 범부중생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수행과 교화의 훌륭한 도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에는 수행과 교화가 분리되거나 선후도 없는 것입니다. 언뜻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수행이며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교화이므로 이 둘은 분리되거나 선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동시에 겸해야 진정한 보살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은 ‘보리를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보리를 구하는 것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교화하고 교화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살은 그 마음이 항상 ‘공(空)’ ‘가(假)’ ‘중(中)’의 3제(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되 현실의 고통과 함께 해야 하고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수행이 교화이고 교화가 수행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참선, 독경, 염불, 주력, 기도 등도 교화이며,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을 홍포하고 실천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 속에 참여해서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시민운동도 또한 수행이며 부처의 행동입니다. 통일, 공해추방, 사회복지, 경제정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사회운동들도 수행이며 부처의 행인 것입니다. 〈유일마니보적경〉에서 “광야나 산에서 연꽃이 피지 않고 방죽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열반 속에서는 보살이 생겨나지 않고, 애욕 속에서 보살법이 생긴다”라고 한 것이나,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이보현행 오보리(以普賢行 悟菩提)”라고 한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수행을 능숙한 언사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행동으로 변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생의 현실적인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그치게 하고 현실적인 안락을 시여하는 일 등등, 곧 그런 처처의 보살행이 그대로 성불행, 즉 부처의 행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토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장엄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행입을 깨닫고 그와 같은 불사(佛事)를 하는 곳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중생성품 쉬고 부처성품 행하면 ‘깨달음’
공해추방·사회복지·공명선거 운동도 수행교화

“진리를 추구하되
현실고통 함께 해야하고
고통해결 위해 삶 속에서 노력하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6

양 형 진

진여 즉 제법

‘사과와 달’ ‘번뇌와 보리’ 개체아닌 한 운동
“현실 떠난곳에서 진여·열반을 찾지말라”

물리학의 전 역사를 단 한 마디로 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일 것이다. 여기서 통합이란 그 이전보다 더 종합적으로 자연 세계를 이해하여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서로 연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잡다한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적은 수의 원리에 의해 통일적으로 설명되었던 예는 무수히 많다. 물리 현상을 피상적으로 관찰한다면 그 자체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상 간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여러 현상들을 보다 간단한 통합 원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밤하늘에 떠 있으면서 한 달을 주기로 그 모습이 바뀌는 달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현상은 초기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이 다를 뿐,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뉴턴은 밝혀내었다. 뉴턴에 의하여 떨어지는 사과와 지구를 공전하는 달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물리학에서의 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몇 가지 중요한 예만을 들어보자. 전자기학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동일한 근원에서 연유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전자기학의 기초를 완성한 맥스웰은 빛이 바로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폭과 깊이는 현대물리학에 오면서 더욱 깊고 넓어지게 된다.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우선 파동과 입자에 대한 이해가 종합된다. 전에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며, 전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전자나 빛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 입자가 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기본 입자에 대해서는 입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고 파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다. 또한 역으로 입자라고 해도 좋고 파동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언어의 궁색함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언어가 자연 대상을 표현해 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물리학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이 사건은 현대물리학의 한 기둥인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기둥인 상대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그 이전에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삼으면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동력학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개념은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개념은 중력과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눈에 비치는 개개의 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개개의 세계는 차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과의 운동은 달의 운동과 다르고 전기는 자기와 다르고 파동은 입자와 다르고 시간은 공간과 다르며 중력은 가속도와 다르다. 그래서 또한 번뇌는 보리와 다르고 생사는 열반과 다르며 마음은 중생과 다르고 중생은 부처와 다르다. 그러나 자연 세계에 대한 깨우침은 사과의 운동과 달의 운동을, 전기와 자기를, 파동과 입자를, 시간과 공간을, 중력과 가속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이는 세계가 오직 연기요 공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단 하나의 근본이 있을 뿐이지만 그 현현함에 있어 개별 세계의 차별성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일이다. 그래서 또한 부처님은 번뇌와 보리가 하나요 생사와 열반이 하나며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셨을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장엄한 화합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현실을 떠난 곳에서 찾지 말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이기도 하다. 우리가 발디디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찾는 진여의 세계, 그래서 제법이 진여와 상즉하는 그 세계가 바로 대승의 세계일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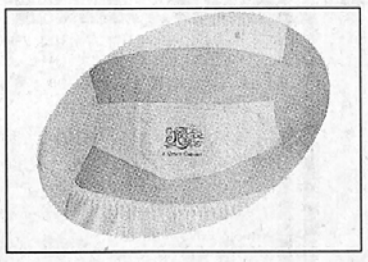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고은 불교대하소설



천인오쇠(天人五衰)

머리의 꽃이 시들고 겨드랑이에 진땀이나며 천의가 더러워지고 몸의 위광이 사라지며 지금까지 있던 자리가 싫어지는 것 이는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는 징조로 천인오쇠라 한다

어찌 하늘이 그저 하늘일 따름이겠는가. 저 푸른 울음으로 가득한 하늘을 일러 '하늘의 인내'라고 감탄한 바도 없지 않거니와 하늘 속의 실로 모르는 대기(大氣)의 운행과 함께 거기에는 생사의 온갖 기운도 운행함으로써 하늘의 일이 어느덧 땅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늘 속의 찬란한 7보 궁전이 있을진대 저녁 낙조가 자아내는 하늘 속의 그 황홀한 빛깔들의 작품이야말로 어느 화공(畵工)과 어느 건축가가 쉽사리 이룩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있어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땅위에서 서로의 집단적 욕망이 충돌하여 싸움이 벌어질 때에도 그날이 하늘의 우연과도 같은 조화에 따라 비가 쏟아지는 날씨로 굳어지면 도술(術數)을 자랑하는 군대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며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라면 과녁에 명중시키는 명사수(名射手)로서의 궁병(弓兵)인들 골짝 못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어찌 하늘의 그 시퍼런 허공이 땅의 일과 상관 없다하리. 어찌 하늘 속 구름 한 점이 지상의 인간계나 축생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리. 어찌 아수라계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다가 무시무시한 집채덩어리 파도로 난리를 치는 일을 하늘의 기운과 동떨어졌다 하리.

그러므로 가장 영혼적인 신명(神明)을 지닌 원시시대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뇌과(腦波)를 가지고 한 마디 말 따위도 필요없이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았던 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만 고대인도의 지혜로운 하늘(天-提婆)조차도 인간계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절대를 표상하는 오직 한 분만의 존재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계와 같은 중생의 한 족속이 머무는 미계(迷界)인 것이다.

다만 그런 미계 가운데서 가장 수승(殊勝)한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천인(天人) 또는 천상인의 남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땅 위와 땅 속의 중생보다는 훨씬 복지(福地)로 넘치는 낙원으로 되고 있지만 그 신(神)들의 일도 끝내는 중생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하늘 속의 나원에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승화(昇華)란 땅 위에서의 10선(十善)을 지은 선업(善業)에 의한 정확한 보상인 것이다.

그런 하늘의 세계는 좀더 자상하게 알아보아야했지만 여기서는 만화가 받기 시작한 하늘의 고통이 더 절박한 노릇이다.

이제 그는 땅 위의 어떤 고통이나 지옥의 8한8열에 의한 그 극한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하늘의 고통속에 잠겨있었다.

"앗!"

"앗!"

이같은 뜰막한 절규조차 나오지 못하였다.

어찌 이런 고통으로 끝마치는 천상계의 즐거움과 행복이 거짓이 아니었던가.

만화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도 그의 다리가 토막나는 아픔의 틈서리로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즐거움을 아낄 줄 모르고 즐거움을 싫갈 줄 모르는 자는 또한 고통도 덜어지지 않고 다 받아야 하는 자이니라."

아니, 그 소리는 만화로서는 한 자도 해독할 수 없는 하늘의 문자로 기록되어 하늘의 검은 빛깔 하공에 내걸려 있었다.

하늘은 한낮이라 하더라도 검은 빛깔이다. 다만 그 하늘의 궁전이 천상의 즐거움



63

회에 넘치는 오랜 표정이 고통에 의해서 여지없이 일그러지고 만 상태로 함악한 얼굴에 고통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에 이르러 천인의 몸에는 다섯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첫번째는 하늘 속에서는 언제나 머리에 화관(花冠)처럼 피어난 꽃이 시드는 것이다. 그 꽃도 고통 때문에 더욱 빨리 시들어야 했다. 그것이 꽃의 고통이다.

두번째는 천인의 몸 겨드랑이에 진땀이

의 주위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독뿐이었다.

이제까지 그렇게도 다정한 천녀 아사도 다른 천인 천녀들도 어디로 가서 그가 남겨진 천상계가 한갓 잡초 투성이로 보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천녀들은 나를 항상 좋아하고 사랑해마지 않았건만 어찌하여 일시에 나를 잡초처럼 버리고 떠난 것인가. 나는 어디에 의지한단 말인가… 천상계 선견성(善見城)이 사라진 것인가… 네가지의 감로(甘露)도 맛볼 수 없고 청정한 다섯가지 음악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아 고통이 다시 나를 엄습한다. …아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제발 제석천(帝釋天)이여.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제발 저 아랫세상의 마두산(馬頭山)이나 옥초해(沃焦海)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비통하기 짝이 없는 한탄과 비원 가운데서 말하는 감로는 천상의 술을 말한다. 또한 마두산이나 옥초해는 두말할 것없이 천상계의 반대인 지옥계의 한 산과 바다를 말한다.

그 산과 그 바다의 고통이란 또 얼마나 처참한 것이겠는가.

이런 불안에 떨고 있던 만화가 갑자기 그가 지니고 있던 전생의 바닷사나이답게

이제까지의 천상 나원의 즐거움이나 일종에 이르러서 피할 수 없었던 5쇠(五衰)의 고통조차도 덧없는 것이었다.

천상계 역시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천상계 마지막에야 새삼 깨닫게 된 만화로서는 그곳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이면(裏面)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도록 깨달은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조금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런 업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천상과 지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없이 어떻게 진리를 실현한단 말인가. 선도 미혹이거늘 하물며 악일손가. 선과 악도 다 멈춘 그 자리에 가서 한 줄 재가 될 수 있어야 거기에 열반의 꽃 한송이 피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만화의 생각은 마치 그가 고통을 받고난 뒤의 어떤 무감각처럼 둥둥 떠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각을 발전시켰다. 하공계의 그 공간은 순수한 진공(眞空)으로서의 무(無)와 공(空)의 영역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허공이 그것이었다.

그 허공은 아주 크다. 크다는 말조차 맞지 않을만큼 크다.

그런 허공계의 일정한 부분은 대기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성층권(成層圈)이다. 그

"천상도 끝내는 고통의 세계" 선악 멈춘 자리에서 열반의 꽃 한송이…

화 엄경은 이런 하늘의 검은 빛깔을 말하고 있거니와 그것이 땅위의 사람에게는 어느덧 땅위의 중생보다 더 높은 단계를 표상하는 푸른 빛깔의 순수한 원색으로 달라지는 것이었다.

더이상 절규도 신음도 낼 수 없는 만화에게는 그의 애인이었던 아사의 모습도 사라진채 오직 고통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아픔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천상계를 떠나야 한다면 누가 천상계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겠는가. 하지만 인간계에서의 선업을 닦는 일 자체도 중생의 미혹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는 일이 아니므로 끝내 하늘의 궁전에 태어나는 일조차도 중생의 행방(行方)에 불과한 것이었다.

만화는 이제까지의 천상에서 이룬 그 환난다. 세번째는 천의(天衣)에 때가 묻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네번째는 몸의 위광(威光)을 잃음으로써 갑자기 몸이 꺼진 것처럼 되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이제까지 있던 자리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런 다섯가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징조를 일러서 천인오쇠(天人五衰)라 한다. 바로 만화가 이같은 다섯가지 징조를 내보이며 그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만화는 그의 고통조차 점점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고통도 다 떠나버린 생명의 쾌허가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남겨진 신세가 되었다.

"아!"

라고 힘없는 탄식이 나오다가 말았다.

그는 그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겨드랑이에 젖은 땀냄새가 역겨웠다. 하늘을 날 때의 그 우아한 비상(飛翔)의 날개였던 옷도 얼룩지기 시작하였다.

아니, 만화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곳의 허공에는 엄청난 먼지와 티끌,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의 분자(分子)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우락부락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연의 일이었다.

만화가 하늘 속의 허공에 우뚝 섰다.

"왜 내가 이 모양으로 남루한가!"

"왜 내가 이 모양으로 비감한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고 아수라 바다 한복판에 일어지면 어떻다는 것인가!"

"왜 내가!"

"왜!"

"왜!"

그는 그 자신의 몸을 두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고통이 다시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이상 그 고통때문에 고통이상으로 과장되지 않고 돌이나 구리의 원광(銅鑛)이 그러는 것처럼 무감각상태로 그 고통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천인으로서의 만화는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은채 천인의 최고에 이르러 눈을 딱 감아 버렸다.

이제까지의 천상 나원의 즐거움이나 일종에 이르러서 피할 수 없었던 5쇠(五衰)의 고통조차도 덧없는 것이었다.

천상계 역시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천상계 마지막에야 새삼 깨닫게 된 만화로서는 그곳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이면(裏面)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도록 깨달은 것이다.

천상에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조금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런 업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천상과 지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없이 어떻게 진리를 실현한단 말인가. 선도 미혹이거늘 하물며 악일손가. 선과 악도 다 멈춘 그 자리에 가서 한 줄 재가 될 수 있어야 거기에 열반의 꽃 한송이 피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만화의 생각은 마치 그가 고통을 받고난 뒤의 어떤 무감각처럼 둥둥 떠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각을 발전시켰다. 하공계의 그 공간은 순수한 진공(眞空)으로서의 무(無)와 공(空)의 영역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허공이 그것이었다.

그 허공은 아주 크다. 크다는 말조차 맞지 않을만큼 크다.

그런 허공계의 일정한 부분은 대기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성층권(成層圈)이다. 그 공간의 허공에는 엄청난 먼지와 티끌,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의 분자(分子)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분자 속의 중성자(中性子)의 행위에 따라 다른 현상으로 발전하는 업-카르마-의 세계가 시동(始動)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만화는 그런 먼지와 티끌이야말로 세계를 떠도는 영혼의 미립자(微粒子)라고 생각하였다.

"천상에는 이런 영혼의 가장 작은 씨앗들이 없는 즐거움만의 사막인지도 몰라. 아니 천상도 끝내는 고통의 세계일 뿐이지"라는 만화의 독백이야말로 그가 살았던 천상계를 떠나는 일종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계의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 조향숙

아봐타 코스 : 깨달음의 향연
-아봐타 씨리즈 제1편-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Avatar®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부처님께서 억대 큰스님들에게 거짓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이고 그런 경지를 실지로 확인하고 체득하여 活用할 수 있다면……
수십년간 구도생활을 하시고도 또 못년 동안을 어떤 방편을 드시고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또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말해 근원(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찾았다고 하더라도 습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아봐타 코-스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요
지금 국내외에서 구도자들은 물론 정신세계(심리학, 철학, 4차원 세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닌 확실한 방편이 여기 있습니다. 아봐타 코-스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구나 외울 것은 하나도 없다. 아스타와 참가자 사이에 대화도 거의 필요없다. 이 코-스는 체시된 방편을 즐기는 가운데 근원을 체험하여, 자신이 이미 무한 가능성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행을 떠나듯이 홀가분한 기분으로 8박 9일(10일 정도)동안만 어행하는 기분으로 모두를 잊어버리고서 참 나를 찾는 어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참 나와 하나 되어 일체 응심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을 갑해 보십시오. 이렇게 쉬운 방편도 있었구나 하고 환복을 하실 것입니다.
아봐타 코스 문의
☎ (0631) 78-5161
호출 012-634-5161
한남 체육시 종합을 참조 재정불고조제를 얻습니다
인기된 의해아무스의 등본입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해를 맞이하여
이자임 결혼 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제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이 불자님들을 향해 빛을 더하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며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적인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며 최고의 만족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기쁨 속에…
결혼연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결혼예정자들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자세와 기다림의 미덕이 필수 요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의 첫 느낌과 예감이 좋다면 가장 이상적인 출발한 궁합이 아닐까요?
발을 감고 씨를 뿌리듯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진실한 자세로 서로의 취향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심새한 감각과 독창적 견지를 개척한 교감이 어우러진 청춘남녀의 행복한 결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해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사진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 15명 이내
■출발일 : 1996년 3월 21일(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 (02) 511-1080

현대불교
광고신청문의 7737-0693
구독신청문의 7737-0693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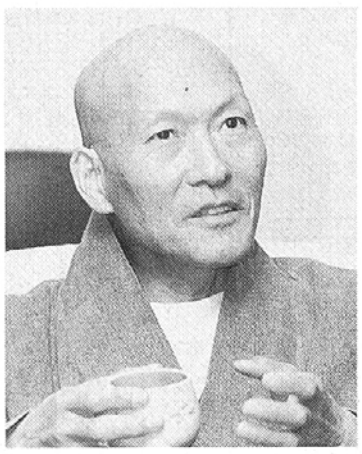
"사회정화는 인간의 향기에서…"

맑고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법정스님과의 만남 ❷

주제: 맑고향기로운 사회

대담: 공종원 〈언론인〉



법 정 스 님



공 종 원 씨

▲**공종원**: 스님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요즈음 활동은 어떠신지요. 독자들도 매우 궁금해 합니다.

▲**법정**: 한달에 한번 정도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맑고 향기롭게 관련 지방법회에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중이 시주밥만 먹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안되니까하고 나다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나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수도생활이라는 것도 일정한 공간에만 안주하다보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충전하는 의미에서 바깥 출입을 합니다. 이렇게 바깥출입을 하다보면 세상사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공종원**: 불자들조차도 시정의 생활에 시달리다 보면 그날그날 삶에 엉켜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늘 그런생활 가운데서도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삶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우리 시정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요.

▲**법정**: 요즈음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보는 오히려 본래 정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마치 인간이 정보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침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외부의 소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소리를 들을 수 없고 가장 맑고 고요하게 지내야 할 시간까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게 되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시작해야 될 시간이 외부의 소음(정보)으로 인해 구겨지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간과 정보의 상관관계를 잃게 되고 정보의 노예가 되지않겠냐는 우려도 하게됩니다.

▲**공종원**: 정보홍수속에서 살다보니, 자연 불교도 대사회적인 활동을 해야하는데 스님들 가운데 자기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입장보다는 사회참여에 원력을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스님의 기본적인 자세와 결부될 수 있는냐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종교가 사회의 눈치를 본다면 종교 본래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위치에서 제몫을 다 할 때 건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출가정신이 결여될때 자연히 세속적인 눈치나 보는 것으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스님들은 소수이고 많은 스님들이 정진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종원**: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정**: 가장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사찰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등한시하고 있는 곳도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큰 절근처의 개울에 이끼가 없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함부로 버리고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옛 수도승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고 시주들로부터 얻어다 쓰는 형편인데 함부로 버리고 낭비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덕성은 물론 가장 아끼고 맑게 간직해야 할 심성까지도 버리는 꼴이 됩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갈 때 가장 좋은 물건만 공양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시주하라는 것입니다. 고급품만을 시주하게 되면 스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급화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낭비이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다 빚이지요. 이런 생각들이 옛날에는 철저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공종원**: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가장 불교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수양에서 대사회적인 대인간관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불교정신에 가장 맞고 불교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불자들이나 시민단체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불교는 나쁜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마음을 깨끗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삶을 이루면 향기는 저절로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의 향기가 맑음속에서 풍겨나오듯이, 우리들이 인간다운 삶은 산다면 인간의 향기는 저절로 나와 사회를 향기롭게 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국 각 사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맑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공종원**: 지난해 있었던 삼풍붕괴사건이라든가 5·18 비자금과 같은 불안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정**: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 것, 다시말해 썩고 낡은 것을 베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총선거로 세상이 또 한번 시끄러울지 모릅니다. 후보가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고 선택한다면 나라는 무슨꼴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경륜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믿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선택한다면 일은 또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양심으로 선택해야지 종파적인 편견이나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종원**: 사회윤리 가정윤리가 우리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정**: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는 것은 가정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번듯한 가정은 있어도 대화의 창구인 따뜻한 가정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겉돈다는 것은 따뜻한 가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쏟아놓을 상대가 없다는 뜻이지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 자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불교계내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보다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공종원**: 올해는 특히 더 큰 원력을 세워 좋은 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법정**: '부처님이 뭐냐' 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자비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지요.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고 할 때 견성이나 성불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부처님이라고 늘 생각합시다.

정리=김종근 기자

이웃에 따뜻한 사랑 나누는 자비심이 '부처님'

"과다한 정보는 인간을 정보노예로 만들어"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된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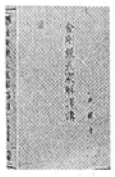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새로나온 책…

▲금강경오가해譯講(야옹스님 편)=한국불교의 대표적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다섯가지 주해와 함허득통의 〈설의(說誼)〉를 해석했다. 강원에서 수학할 당시부터 80 고령에 이르는 오늘까지 평생동안 수지독송한 〈금강경오가해설의〉를 토를 달며 강의.



〈승룡사, 비매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윤청광 지음)=고승열전 시리즈 제13권으로 한국 불교교육의 선구자인 영호(속명 박한영)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책.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등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들과 청담, 운허, 경보스님 등 불교계의 거목들이 스님의 문하에서 배출됐음을 밝히고 있다.



〈언어문화, 6천원〉

▲걸망에서 배운 인생(삼증스님 지음)=재소자 교화에 힘써 온 스님이 삶의 갈피에서 겪어야 했던 정 감어린 사연을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으로 펴올렸다.



〈태일, 6천원〉

▲걸망과 바리때 1·2(진병호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법손이 이어지기까지 중국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선종의 흥미로운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진흙소, 각권 7천5백원〉

불교만화 아직 '걸음마 단계'

'만화 화엄경' 등 불과 30여종뿐… 올 4종 발간계획

문체부 만화산업 육성책 발표 계기
만화장점 살려 '1등 포교사'로 활성

최근 문체부가 올해를 '만화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영상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화산업 육성책을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불교만화의 출판이 본격화 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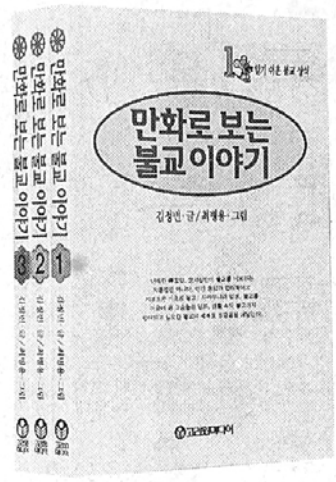
만화책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에 들었다 하면 한번에 통독하게 하는 재미와 가독성(可讀性)을 지녔다. 그래서 어려운 교육용 참고서나 복잡한 역사물등이 최근 잇달아 만화책으로 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전 선보인 불교만화는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있다. 따라서 영상세대를 위한 포교용 불교만화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만화는 겨우 30여종(그나마 10여종은 일본·중국만화의 번역본). 이는 지난 95년 신간 만화 발행량 4,699종의 0.6%에 불과한 수치다. 불교만화를 낸 출판사도 불교만화사 우리출판사 간경도감 불지사 불광 고려원미디어 호산문화사 부다가야 등 11개 출판사에 불과하다.

열악한 불교만화 출판의 활성화는 문체부의 '만화산업 도약의 해'와 조계종 '불교청소년의 해'와 맞물려 더욱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층과 만화매니아들에게 불교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심어줄 수 있는 만화의 진흥과 보급은, 가장 적은 투자로 불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포교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발간될 불교만화책은 불교만화사의 〈화엄경〉 시리즈 제7~10권과 불지사의 〈화이팅 손오공〉, 간경도감의 〈임진왜란과 삼련비구니〉, 고려원미디어의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제4·5권 등 4종에 불과해, 이 정도로는 불교만화 보급에 별 도움이 될것 같지가 않다.

약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올해 문체부의 만화관련사업으로는 한국적 소재의 캐릭터·애니메이션 개발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만화관련 공모전(6~7월) 실시, 국제만화페스티벌 개최(8월), 만화도시 조성(춘천 예정), 우리 만화의 해외진출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출판·영상만화를 통합한 제1회 '만화문화대상' 시상(12월)도 포함돼 있다. 이중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전'은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등의 주제와 관련한 캐릭터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 만화세대를 위한 불교만화 출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은 최근 발간된 고려원미디어의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교계 유일의 불교만화전문출판사인 불교만화사의 임기준사장은 "〈화엄경〉 전10권이 3월경에 완간되면 8월에 열리는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출품할 계획이다"면서 "교계도 이제는 만화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란 인식을 버리고 가장 효과적인 1등 포교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1600년 한국불교문헌 총정리

동대출판부 '한국불교전서' 12권 완간

'속장경' 이후 최대 학술불사로 평가
시대·저자별 구성…26년만에 마무리

한국불교 1천6백년의 문헌을 총정리하는 고려 〈속장경〉 이후 최대의 학술불사가 26년만에 마무리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출판부는 총 12억원을 투입해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10권을 펴낸데 이어, 6년만에 보유(補遺)편 제2권을 추가함으로써 현존하는 한국불교 문헌을 총망라했다. 12책으로 완간된 〈한국불교전서〉는 불교전래 이후 신라 원측(613~696)이 쓴 〈반야심경찬(般若心經贊)〉으로부터 고려의 의천-보조를 거쳐 한말 보정(寶鼎: 613~696)의 〈염불요문과해(要門科解)〉에 이르기까지 저자 1백80여명이 남긴 3백여종의 옛문헌을 집대성했다.



고려 의천의 〈속장경〉 이후 최대의 학술사업으로 평가되는 이번 〈한국불교전서〉 12권 완간은 불교학 뿐만 아니라 역사철학 문화 등 한국학 전분야에 획기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간행된 보유편 제2권에는 △원측의 〈造塔功德經序〉 △의천의 법손 곽심의 〈圓宗文類集錄〉,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 △조선 지선의 〈五種梵音集〉, 경일의 〈車溪集〉, 해붕 전령의 〈海鵬集〉, 백파선선의 〈茶毘說〉 △한말 보장의 〈염불요문과해〉등의 희귀본을 싣고 있다. 특히 곽심의 〈원종문류집해〉는 의천의 화엄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며,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는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비도량참법 미수대사술해〉와 〈자비도량참법 동림사약해〉 등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4·5집' 펴낸 진홍섭 씨



조선 선종~경종때 정사·개인문집 토대
미술사 자료 체계화

'한국미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원력으로 소리없이 작업을 진행해 온 원로 미술사학자 진홍섭(78·전 문화재위원장)박사가 최근 새 책을 펴냈다. 〈한국미술사자료집성〉 제4권과 5권(일지사 刊).

3권에 이어 5년여만에 나온 이번 자료는 조선중기 선조(1576년)때부터 경종(1724년)때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왕조실록〉 같은 정사는 물론 야사·개인문집까지 소상히 뒤져 미술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뽑아내 체계화했다.

이번 제4권 회화편과 제5권 건축·조각·서사(書寫)·공예편을 위해 그가 조사한 자료는 개인문집만도 1천1백여권에 달한다. 특히 제4권 자료를 통해 18세기까지 상당히 많은 회화작품이 있었으나 대다수 전해 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없어 애로가 많았다"는 그는 후배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손쉽게 자료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87년 제1권이 나온 후 조선중기를 넘어서는데 10년이 걸렸지만 근래 미술사 전공자들의 연구폭과 깊이가 심화되면서 그의 작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진박사는 "올 여름까지 3권 분량의 원고를 마무리 짓고 전공으로 돌아가 생전에 불교미술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싶다"고 노익장의 학구열정을 펴보이고 있다. 〈재〉

명사추천 불서 100선

일타스님 '기도'

양서(良書)와 만날 수 있는 인연에도 감사할 일이다.

지금은 경북 영천 은해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일타스님을 아직 친견할만한 복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이 펴내신 책, '기도'를 만날 수 있는 선연(善緣)은 한 조각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율사(律師)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으며, 청정한 계율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스님께서 '기도 성취 영험담'을 모아 펴내셨다는 소식은 지면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친구에게서 꼭 읽어볼만한 책이라는 권유와 함께 〈기도(新禱)〉를 선물 받았다.

총 237쪽의 책 한권을 다 읽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일타스님 자신을 비롯한 스님의 도반, 선배, 제자, 신도들이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들과 전래되는 수많은 기도 성취담중에서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스님께서 감명깊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 52편이 내 시선을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한결같이 놀라운 영험을 보이는 기도 이야기도 이야기려니와 기도를 올리는 이들의 더없이 진실된 마음이 여과없이 내게 전달되었다. 게다가 편편의 이야기들이 끝날 때마다 짤막하게나마 부연 설명을 잊지 않고 있는 스님의 글은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도록 유도해 주기도 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침마다 108배를 하느라 허리를 접으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살며시 받쳐올리면서 나는 어떤 발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져본 이런 질문들에 일타스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셨다.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러나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된다. 신심을 가지고, 환희심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라."

스님께서는 일상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기도 하다.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상시 아침에는 108배를, 저녁에는 108번 염불을 생활화 하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 정성을 다해 매일매일 기도하노라면 어느 결엔가 그릇된 생활 태도들이 달라져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에는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는 당장 다급한 내 사정을 불 보살님께 호소해 일이 잘 되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할지라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불 보살님의 자비심과 반야지혜를 지닐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그간 많은 스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제 다시 일타스님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보니 그 감동이 더해 감히 불자들께 일독을 권해 본다.



정 채 은
(㈜해맞이 대표)

환희심 가득찬 기도성취담 52편
'기도 왜·어떻게 해야 하나' 지침서

고침:63호 8면 '명사추천 불서백선' 내용중 무재출시(無財出施)의 출(出)은 칠(七)의 오자입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타	효림
2	신통	혜운	청마
3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화
5	방한암선사	김호성	민족사
6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대원사
7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토출판사
8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9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	전이창	솝리
10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청	둥지

구입문의:(02)737-0695

불은 가득, 법향 가득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 서적, 나아가서 불교 문화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정신 문화를 가꾸어 가는 주역들입니다.

"항상 친절한 안내로써 맞아주기에 항상 편안히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불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에 와 보면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책방 여시아문에 거는 불자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날카로운 지적 바로 전문가의 그것과 견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문들도 있지만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끊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책방 여시아문도 꼭 해 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훌륭한 다리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여러분과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더욱 튼튼한 다리이고자 합니다.



찾아오시려면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조계사 원화당 안 해
광화문 종로구청 운주사 공평빌딩 종각역 종로3가 인국동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95 베스트 20선

아래 베스트 20선은 1995년 한 해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불서들로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좋은 불서와의 뜻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1. 금강경강의 / 무비 · 불광출판부 · 5,500원
생활 중 겪는 사례 인용한 금강경 전 32분 해설서.

2. 기도 / 일타 · 효림 · 5,000원
일타 스님 기도 성취 영험담 모음집. 올바른 기도법 제시

3. 삶에서 깨어나기 / 틱낫한 · 장경각 · 5,500원
틱낫한 스님의 임상적 삶 속에서의 수행 · 명상법 찾기

4. 알기 쉬운 불교 / 불교방송 편성부 · 불교방송 · 5,000원
불교방송의 '자비의 전화' 신행상담 답변 묶음

5.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2,500원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로 삽시다' '생명의 참모습' 등 13편의 법어 모음.

6. 하산 / 홍주 · 불지사 · 5,500원
상반되는 두 수행승의 갈등과 고뇌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전격 구도소설

7. 영가천혼법어 / 석성우 외 · 토방 · 15,000원
원명 · 숭산 스님 등 고승들의 영가법문

8. 선 백문백답 / 진제 · 파란나라 · 3,000원
성진대중과의 문답으로 밝힌 선의 요체

9.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현준 · 교보문고 · 7,000원
전각, 석물 등 사찰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밝혔다.

10.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 / 임현담 · 효형 · 6,000원
카볼릭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한 의사의 인도 구도 여행기

11. 등신불 1, 2 / 석용산 · 문학수첩 · 각 6,000원
불교사상 최초의 등신불이 된 김교각 스님의 구도적 생애를 거울로 하여 저자 자신의 삶을 투영한 장편 구도 소설.

12. 나를 보게 하소서 / 현장 · 민족사 · 5,500원
염불을 선(禪)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10여년간 수련지도를 해온 현장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13. 나는 누구인가 / 라마나 마하리쉬 · 청하 · 5,000원
붓다나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 받았던 라마나 마하리쉬의 생애와 가르침, 자아탐구를 하는 수행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필독서

14.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일타 · 효림 · 5,000원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아홉 비구의 '자경문'을 풀이한 것으로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 불교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 방법을 알려 준다.

15.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 이청 엮음 · 둥지 · 6,500원
지난 4월 조계종 사태 때 추대 140일만에 종정직을 떠났던 서암스님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밝힌 회고록.

16. 달마의 제자들 / 고우영 · 불지사 · 5,500원
달마를 기조로 중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조사들과 한국 고승들의 치열한 구도 행장기.

17. 선 1, 2 / 고은 · 창작과 비평사 · 각 6,500원
달마가 중국 선종의 개조가 될 때부터 6조 혜능 이후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분화되기까지의 선종의 역사를 그린 본격 선 소설.

1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권영한 · 진원문화사 · 15,000원
사찰을 처음 찾는 이들이 잘 모르는 사찰 예절에서부터 늘 절을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최소한의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19. 부처님 말씀 / 성열 · 현암사 · 13,000원
초기 경전인 아함경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 42장경 1, 2 / 오쇼 라즈니쉬 · 상하출판 · 각 7,500원
42장의 시편으로 구성된 42장경을 라즈니쉬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와 함께 걸들여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불전 읽기.

영산재 짓소리 53곡 발견

법현스님 '동음집' 비교분석 발표
기존소리 15곡포함 68곡으로 늘어

영산재에 사용돼 온 짓소리는 그간 15곡만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짓소리의 곡목을 68곡으로 밝힌 논문이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악 음향자료 영구보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현스님(봉원사)이 최근 발간된 〈문화재 제28호〉를 통해 짓소리 68곡의 곡목을 밝힌 것.

법현스님은 수록 논문 '범패의 분류 연구(1)'를 통해 "그간 조사된 짓소리는 15곡이지만 어장(魚丈)들의 〈동음집(同音集)〉을 비교 분석한 결과 68곡외 곡목과 가사내용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1968년 5월 13일~16일까지 서울 봉원사에서 거행된 영산재에서 김운파 박송암 김운공 박운월 등 어장들에 의해 밝혀진 짓소리는 모두 11곡이었다. 그후 69년 8월 8일과 12일 한만영교수(서울대)에 의해 2곡이 더 채록되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박송암스님의 증언과 조사에 의해 2곡이 더 조사된 것이 짓소리 15곡의 조사과정이다. 그러나 송암스님등 원로 어장들은 "영산재에 쓰인 짓소리는 72곡 이상이란 얘길 스승들에게 들어 왔다"고 전했으며 그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던 법현스님이 최근 68곡의 짓소리 곡명과 가사를 밝힌 것이다.

법현스님은 박세민스님이 91년에 펴낸 〈불교의식자료총서〉와 박운월스님 소장판본 〈동음집〉 김운공스님 소장 판본 〈동음집〉 〈옥천유교동음집〉 장벽응스님 소장 판본 〈동음집〉을 토대로 짓소리의 곡명과 가사를 밝혔다. 〈동음집〉이란 어장들이 스승에게 소리를 배우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와 같이 내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받아 적어 둔 일종의 노트다.

"〈불교의식자료총서〉과 네권의 동음집을 분석한 결과 운월스님 소장본에는 57곡이 운공스님 소장본에 57곡 옥천유교동음집에 59곡 벽응스님 소장본에 60곡의 짓소리 곡명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을 분석해 보니 68곡의 짓소리와 그 가사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됐다."

사부청(四部請) 시제중등일(是諸衆等一) 등 법현스님이 새로 밝힌 53곡의 짓소리는 곡명과 가사는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 소리가 어떤 음률로 불리워 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생존하는 어장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가 복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법현스님



◇영산재에 사용돼 온 짓소리가 지금까지의 15곡에 53곡이 추기돼 68곡임이 밝혀졌다. 사진은 영산재 의식을 봉행하고 있는 인간문화재 스님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년까지 충남등 나머지 7개도의 문화유적을 수록한 2·3집을 발간, 전국의 문화유적을 총망라한 CD롬 종합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국 문화유적 총람 CD롬 발간

사찰·성·마애불·석탑등 5천여건 유적별 수록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CD롬이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제주도,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 지역의 문화유적 5천여건과 이에 대한 자료를 총정리한 '전국문화유적총람 CD-ROM'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제1집은 문화유적을 성, 봉수, 전적지, 궁, 사찰, 마애불, 석탑, 당간지주, 충효비 등 40여 종류로 구분해 유적별로 명칭, 소재지, 유적내용 설명, 지정문화재 여부, 관리자 등을 담고 있으며 1천5백여장의 컬러사진과 1백20장의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함께 수록했다. 유적의 종류별, 시대별검색은 물론 다양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며, 편집, 화일저장, 인쇄 기능은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컬러사진 및 분포지도 정보까지 지원한다.

'문화유적총람 CD롬'은 국가 또는 지방이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단체 등이 이제까지 조사해 확인한 유적들도 빠짐없이 모두 망라해 해당지역의 문화유적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인사동·대학로등 '문화특구' 추진
4대문 고궁일대는 '문화지구'로

인사동·대학로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문화특구', 역사·전통문화가 밀집한 4대문 고궁주변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문화예술상 특성이 있는 일정지역 문화업종에 세제 및 건축상의 혜택을 주어 차별화하는 문화특구·지구 지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특·지구 우선 검토지역은 덕수궁~경희궁~세종문화회관 연결지역과 인사동~운현궁~종묘~비원~창경원~대학로 연결지역 등이다.

이곳은 고궁·전시공간·거리공연장 등과 골동·고미술품점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각종 상가 및 업무빌딩 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한편 문화관련 업종 시설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월 문화인물 최치원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2월의 문화인물은 고운(孤雲) 최치원(857~?)선생.

고운선생은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유학 외에 불교와 노장에 두루 섭렵하여 3교에 달통한 대학자며 문장가이다. 그는 12세에 당나라에 유학, 18세에 과거에 급제해 당나라에서 활동하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명문장인 〈격황소서(檄黃巢書)〉로 문명을 날리게 된다.

그는 884년 당시 신라의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을 개혁안인 〈시무십여조〉를 왕에게 올렸으나 이것이 시행되질 않아 산천을 돌아다니다 898년 무렵 해인사로 은거하였다.

고운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진감선사비명〉(887) 〈낭혜화상비명〉(890) 〈지증대사비명〉(893) 〈대승복사비명〉(887~893) 등 통칭 〈사산비명〉이다. 〈사산비명〉은 우리나라 금석학의 최고의 보전으로 문헌적으로도 삼국사기·유사에 비해 시대가 훨씬 앞서며 역사뿐 아니라 불교사 문학사 사상사 등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지증대사비문〉에서는 신라선종사를 간명하게 기술해 놓았다. 조선 광해군때 중관자 해안스님은 이 비명들에 주석을 붙여 승려들의 독본이 되게 했다. 이후 한영스님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해본이 나왔다. 또한 고운선생은 신라 하대 크게 유행한 화엄종에 관심을 가져 오늘날 확인된 화엄종 관련 글이 〈법장화상전〉 〈석이정전〉 〈석순응전〉 〈해인사묘길상탑기〉 등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사산비명' 금석학 最古寶典
'법장화상전' 등 불교서 다수

오늘날 전하는 저술은 〈계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산비명〉뿐이고 글씨로는 쌍계사의 〈진감선사비문〉이 유명하다.

최치원의 달 기념행사로는 학술회의(2/9 성균관 유림회관) 강연회(2/12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 자료전시회 등이 열린다.

문화재 소식

'백월선사비 탁본' 등 134점 반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수집, 일본으로 가져가 야마구치(山口)여대에 보관돼 온 조선시대 희귀자료 97종 134점이 국내에 반환돼 26일 공개됐다.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야마구치여대와 2년여 교류 끝에 지난 23일 문화재 인수단을 파견, 자료를 기증받아 24일 본관 3층 특별전시실에 소장했다.

반환된 자료는 주로 조선후기 17~19세기의 간첩(서간모음), 시첩, 서화첩으로 추사 김정희가 친필로 자신의 서법을 기록한 '완당법첩조눌인병서(阮堂法帖曺訥人書)'와 신라 '백월선사비(白月禪師碑)탁본' '고려자등(高麗慈燈)탑비탁본' 등이 포함돼 있다.

경주 경마장등 올 유적발굴 활발

문체부 문화재관리국이 최근 전년도에 이은 조사와 96년 신규발굴작업 등 모두 75건의 금년도 발굴허가를 확정함에 따라 올 한해동안 전국 각지의 유적지에서 활발한 발굴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발굴작업으로 확정된 곳은 경주 손곡동과 인근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서 벌어질 경주 경마장 건설부지에 대한 구제발굴작업, 경북 경산 임당동고분군과 충북 단양의 수양개 구석기유적 등이다.

불심시심 〈42〉

싸움터 남은 한

禪庵獨坐寂無事 (선암독좌적무사) 선암에 홀로앉아 일 없는 이 적막
來往雲霞訪草扉 (내왕운하방초비) 오가는 구름안개 초가집 문을 찾네
仙鳥亂鳴芳綠樹 (선조란명방록수) 푸른 숲에 우는 새 신선인 듯하지만
一身孤影亦哀哀 (일신고영역애애) 외로이 그림자는 역시 서글퍼
地僻無人絕世境 (지벽무인절세경) 궁벽한 땅 사람 없이 세상과 끊겨
焚香祝聖依柴扉 (분향축성의시비) 향피워 성수무강 축원 사립문 기대섰다
密旨眞經看讀罷 (밀지진경간독파) 오묘한 뜻 참다운 길 부처말씀 읽고나니
戰場遺恨滿腔脾 (전장유한만강비) 싸움터 남은 한이 창자속 그득하다

허백당대사가 정묘호란을 치르고 나서 장안사에 들러서 읊은 두 수의 시이다. 지난 번에 보았듯이 대사는 의승대장의 책무를 갑자기 받고 훈련도 되지 않은 승병을 이끌고 이 싸움을 끝내 이기겠다는 혈맹으로 전진을 수습하였다. 그런 결과로 이기고 지는 결과를 떠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의 몸으로 찾은 옛날의 도량이다.

전쟁과 평온, 그야말로 하늘 땅의 차이이지만 이 두 지점의 계기로 보면 또한 찰라의 순간이다. 생사의 위기 그 자체가 터럭끝만한 시공적 차이이다. 이 찰라의 순간을 지나 찾은 옛 집이다. 그 번화했던 옛날과 달리, 혼자 앉아 있게 된 암자이다. 정적의 고요함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야말로 무사하다. 어제의 소란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구름만이 찾아드는 사립문이다. 하지만 외로운 그 립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은 서글프다.

어제의 어수선함과는 너무도 현격한 오늘의 고요함, 그 야말로 인간세계를 끊은 경지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과 평온의 경계이리라. 싸움에서의 분주함도 이 나라 이 임금을 위해서였으니 평온을 찾은 이 암자에서도 또다시 임금님의 만수를 빌어야 함이 승려로서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오묘한 진리의 경전에 잠시(暫示)해 본다. 현실세계의 싸움이 아직도 애끊는 아픔으로 남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참회로 되풀이 되어야 할 번뇌의 싸움이 남아 있어 더더욱 안타깝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글자 기원찾아 원형회귀"

최규일씨 '전각전'…13일까지 21세기화랑

현노 최규일씨가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이십일세기화랑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전각'을 하나의 새로운 시각 예술장르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최규일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서체를 더욱 회화화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는 최근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넓이 6×6㎝의 옥돌 1천1백10개에 이르는 대작 금강경을 완성한 바 있는 최씨는 이번 전시에 〈화엄경 약찬게〉 〈법성해인도〉 〈신중단〉 등 불교소재 작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화엄경 약찬게·법성해인도.

"선사시대 암각화가 남아있는 것처럼 전각은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예술임에도 우리나라는 인식부족으로 대중화되어있지 못해 아쉽습니다."

전각예술의 대중화가 이번 전시의 취지라는 것이 최규일씨의 설명이다. (02)735-4805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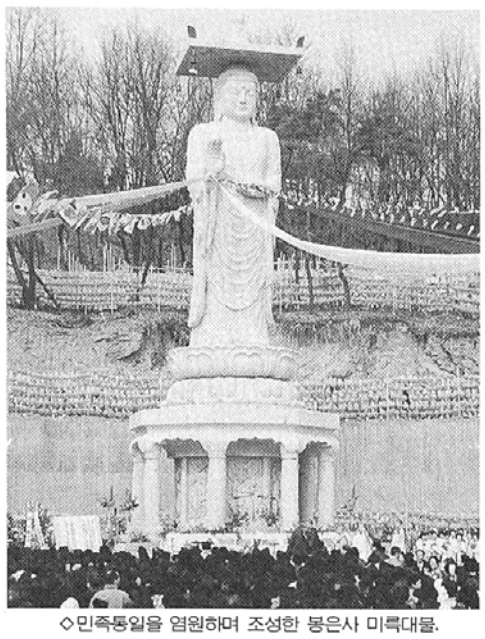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조성한 봉은사 미륵대불.

봉은사 미륵대불 10년불사 회향

도심 포교도량 위상 재정립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가 지난 1월27일 미륵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선종사찰에서 도심포교당으로 면모를 일신했다.

봉은사 미륵불은 좌대 10m, 석상 11m, 두탑 2m 총 23m 높이에 좌대둘레 17m 석상가슴둘레 8m로 총 1만3천톤의 석재가 소요됐다.

봉은사주지 무상스님은 이날 점안식에서 "수많은 불자들의 포교원력으로 이룩한 미륵불상 조성의 값진공덕을 회향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중심적인 포교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1만2천여 불자들의 발원이 한데모아진 미륵대불조성불사는 '서울강남 경기남부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의지처인 봉은사 경내에 미륵불을 조성하자'는 故영암스님의 제의로 시작했다. 지난 86년 4월 불사에 착수 그동안 밀운, 대운, 성문스님에 이어 현주지인 무상스님이 10년불사를 회향했다.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여정에 신도들의 지극 정성도 이어졌다. 입제때 5천여명이 발원한 이후 그해 11월 미륵불 조성예정지에 스치로폴을깔고 1백여명이 철야정진을 했으며 91년부터 94년까지 1천일 철야정진을 하여 지난해 4월 착공식에 이어 11월과 지난 1월에는 복장성물봉안식을 봉행한바있다.

이날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봉은사전주지 성문스님, 이관희 서남재단이사장, 홍성우 민주당최고의원, 권문용 강남구청장, 김왕경 강남구의회의장, 금동주 강남경찰서장, 이일섐 대우건설사장 등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좌선으로 영재 정신수양"

민족사관 고등학교

禪·다도·서도 정규교과 채택 '교실선방'

'재미있다' '유익하다' 등 학생들 긍정반응

불교의 정통수행법인 선(禪)이 한 고등학교의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됐다. 학생보다 교사가 많은 파격적인 투자, 전원 기숙사 생활, 고입성적 상위 1%이내에 든 수재들만 뽑아 벌써부터 한국의 이튼스쿨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고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 선이 채택되기는 이 학교가 처음이다. 1주일에 4차례 실시한다. 선실수는 불교종립학교에서도 특정종교를 가르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일찌감치 아침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맘 때의 여느 학교면 방학을 맞아 휑하기 그지없지만 이곳은 학생들의 바쁜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1월 11일 입소식 이후 매일 아침 7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꽉짜인 일과가 진행된다. 3월 정식 개교 전까지의 교과는 주로 선 다도 서도 등 정신수양과 체력단련.

지난 1월 27일, 오늘 1교시는 좌선시간이다. 그새 익숙해진 듯 학생들은 단전에 두손을 모으고 반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지그시 눈을 감는다. 오늘의 화두는 '조율(調律)'.

어느 사람이 책보기에만 매달려 끝내 눈이 멀었다는 옛얘기를 들려준 후 "너무 풀어져도, 너무 조여도 안된다. 내 몸을 누가 조이거나 푸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를 다스리자"는 법문(?)이 주어졌다. 이내 교실은 선방으로 변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선을 교과목으로 채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에게 선을 가르쳐 정신집중력을 높임으로써 학습능률을 올리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은 가장 뛰어난 정신수행법입니다. 불교만의 것이 아니죠" 이규철 교장선생님의 설명이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성남 매성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승겸군은 "1시간 가깝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기는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5분도 안되어 몸이 뒤틀리고 지루했으나,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도교사 한영호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은 서양식의 교육을 받아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선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에서 전일적인 사고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이 부담감없이 좌선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아는 것만도 큰 수확 아니겠어요."

횡성=정성운 기자



◇'교실이 곧 선방'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불교의 정통수행법인 선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큰스님들도 btn 주주

월하 석주 청하 숭산스님등 동참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 원로 중진스님과 해외포교에 나선 스님들까지 불교TV(btn)의 제3차 주식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90일간 실시되는 제 3차 주식공모에는 칠보사 회주 석주 스님, 영축총림 부방장 청하스님,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등을 비롯 1백여명이 넘는 원로 중진스님들이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마이애미 보현사 주지 경남 스님이 직접 불교TV를 방문해 불교TV가 전세계 모든 불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날을 발원하며 주식청약을 하기도 했다.

조계종 제18 교구 본사 백양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 모두는 8백여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아 주식을 청약하기도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법타스님, 재무부 원우스님 문화사회부 시현스님, 호법부 혜창스님, 등 각 부장스님들도 주식공모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서울 칠보사 대중스님들과 해인사 지족암의 스님들도 뜻을 모아 참여하는등 불교TV 제 3차 주식공모 참여 열기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

이같은 스님들의 참여에 불자들도 뒤질세라 각 신행단체 회원, 사찰 신도, 부부, 가족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불교TV 주식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btn 이호 경영총괄국장은 "이번 3차 주식공모는 1, 2차 때보다 스님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 목표액 6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tn 3차 주식공모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조계종 첫 포살법회 현장

"화합합니다"…청정승가 구현

"대중스님네가 다 모이셨습니까?"

"이미 모였습니다."

"화합하십니까?"

"화합합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조계종 총무원 5층 법당.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원산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24명의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호계합장을 하고 일타스님(전계대화상)이 낭송하는 보살계본을 따라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열린 포살법회는 조계종이 청정승가상을 구현하고 종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린 것으로 총무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포살에 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성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신적 사표인 승려가 먼저 계율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수행과 대중교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매달 포살법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총무원 포살법회는 비구가 지켜야 할 보살계(48계)를 하나씩 읽어가며 그동안에 잘못은 없었는지의 참회속에 1시간가량 이어졌다.

포살법회가 끝나자 월주스님은 "참으로 환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율 하나하나마다 죄를 범한 이가 대중앞에 고백한 후에 참회해야하는 전통적인 포살의 형식을 살리지 못하고 약식으로 끝내 실속없는 법회였다는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엽〉

관음종 종회의원 27명 선출

관음종은 지난달 29일 제33회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을해를 교세확장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증액된 14억 2백45만원을 새해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의장에 법륜스님(인천 홍륜사) 부의장에 세혁스님(세원암) 법화스님(용흥사) 등 8대종회의원 27명을 새로 뽑는 한편 기타토의에서는 종회발의로 김영삼대통령 국방부예배와 관련 규탄성명서를 채택했다.

구인사 정초참배

천태종 30만 종도

천태종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15일간 구인사에서 정초참배를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천태종의 전국 사암과 각단체에서 25~30만명의 종도들이 구인사를 참배및 종정스님을 예방하게 된다.

총지종 원정대종사

89회 탄신법회

총지종은 지난 29일 본산 총지사및 전국사원에서 총지종조원정 대종사 89회 탄신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효강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종조의 유지를 받들어 생활불교 실천불교로서 더욱 매진할 것"과 "올해에는 청소년 교화사업과 불교교양대학개설및 사회복지재단설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탁소리

분종은 막아야 한다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요즈음 조계종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끌어오던 종단과 선학원의 불편한 관계가 결국 딴 살림(?)을 차려야 한다는 막다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지난달 조계종 호법부가 선학원 소속 이사 3인에 대한 등원통지서를 보내면서 가시화 되었다. 등원 당사자 스님들은 "개인적 비리가 아닌 종단과 재단사이의 문제로 출두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원을 거부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선학원 95년도 결산이사회에서는 '종단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규정하고 '선학원 이사를 징계한다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공동대응에 대해 선학원 관계자들은 "종단에서 나가라면 스스로 자립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혀 실질적인 탈종을 의미하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 갈등의 본질은 종단과 종단산하 법인체와의 관계에 있다.

현재 조계종 산하에는 선학원등 재단법인 24개, 사단법인 7개,복지법인 9개가 있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들 법인들이 사회법을 내세워 의무이행에 소홀, 종단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단은 법인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선학원에 △조계종 종지 봉대 △임원 1/3추천권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종단 귀속등의 정관변경을 요구했던 것이다.

오늘의 종단과 선학원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이제 이열차는 이유불문하고 멈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떠한 변명도 종단분열에 대한 죄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앙금을 버리고 서로가 다시 만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조계종의 일불제자이기 때문이다.

X세대 불자 탤런트

홍진경·이잎새양 동국대 연극영화과 입학

타고난 끼에 넘치는 의욕, 돈독한 불심까지 갖춘 불자 탤런트들이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입성했다.

꺽다리 슈퍼모델로 널리 알려진 홍진경양(19세)과 6살때 MBC어린이 드라마 '나래는 요술장이'로 데뷔해 아역탤런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잎새양(19세)이 나란히 동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 틈틈이 밤새면서 공부했어요"라고 말하는 홍진경양은 KBS2 슈퍼선데이 금촌댁네 사람들, 영화 천재선언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쳐온 만능엔터테이너다.

지난 89년 MBC 어린이드라마 스타탄생에서 주인공 은성역할로 그해 MBC연기대상 어린이 연기자상을 거머쥐었던 이잎새양. 얼마전에는 종합병원에 간호원역할로 브라운관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다.



◇홍진경



◇이잎새

선화예고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이양은 "특정한 이미지에 얽매이기 보다는 카멜레온 같은 변화무쌍한 연기자가 되고 싶다"며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공부를 종립대인 동국대서 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이은자 기자〉

"암 · 중풍 · 성인병 · 부인병 · 신경통 · 관절염 · 당뇨병 · 고혈압 ·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맥을 책임지는 경맥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죽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액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증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법열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등 링 받침대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액기스와 링받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혈속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맺이는 쑥액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하나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 · 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바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품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각 시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지사를 모집합니다.
(보급에 필요한 카다로그 제공)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 · 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 (0342) 706-3060

어머니 불심으로 '새 길' 찾아

옥중생활 21년 법사로 새출발 하는 양동수씨

교도소옆 움막짓고 '아들 재생' 염원
"출가 결심…재소자 교화로 속죄인생"

4년을 사형수로, 17년을 무기수로 복역하다 21년만에 출소하는 재소자의 마음은 어떨까.

불심 돈독한 어머니의 정성과 삼중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의 도움으로 사형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모범재소자로 질곡의 인생을 살아온 양동수씨가 마침내 17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출소, 따뜻한 세상의 품에 안긴다.

양씨는 20여년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사형선고를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양씨는 삼중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극진한 불심이 당시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등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탄원했고 무기수로 감형받았다. 양씨의 감형은 어머니 故김상순씨의 눈물겨운 희생과 삼중스님의 구명운동으로 이루어졌음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양씨의 어머니는 양씨가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소 담벽에(1백50m거리) 1평남짓한 움막을 짓고 "아들의 죄는 내 죄"라며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시작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아들의 구원을 위해 부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정이, 4년여의 길고 암담한 사형수 생활로 교수대를 향해 한발짝씩 다가서는 자식의 발걸음을 돌려세우기에 이른 것.

노모의 극진한 불심에 감화된 양씨는 감옥에서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난생처음 그 깊고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양씨로 하여금 초를 다투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 주었던 것이다. 시시각각 가슴을 옥죄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시절을 돌이켜 보며, 불교공부에 더욱 심취했던 양씨는 불교통신교육을 통해 법사로 다시 태어난 것은 물론 모범적인 복역생활로 결국 21년만에 환한 햇빛을 보게 됐다.

사형수로 4년, 무기수로 17년을 복역하는 동안 양씨는 20대의 청년에서 잔주름이 진 50줄에 접어든 중년이 됐다. "출소 후 출가해 어머니와 삼중스님의 뜻을 좇아 재소자 교화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양씨는 삼중스님을 통해 서원했다.

도필선 기자



◇양동수씨는 "수인의 몸이었기에 노모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불효막급함이 뼈에 사무친다"고 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한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체로 선정

청소년교화련 대전지부…3월 2일 개소 예정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가 지난달 25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YMCA, 기독교연합봉사회 등을 비롯 7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선정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정보지원부, 교육개발부, 교육장, 상담실 등을 갖추고 연간 1억1천5백여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활동하게 된다.

3월 2일 개원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상담실 PC뱅크 정보실 등 운영 자료집 발간과 함께 대전지역 청소년자원봉사단체와 협조 정보지원 및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조스님 원장 추대

광주불교교육원 이사회

광주불교교육원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제2대 원장으로 영조스님(증심사 주지)을 추대하고 광주불교문화대학 설립등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주불교교육원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불교학당과 교사학당을 열고 매월 1회 불교문화유적답사를 실시키로 했다.

창원불일청년회 창립
회장에 김용남씨

창원 불일청년회(회장 김용남)는 지난달 18일 창원시 중앙동 불일청년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창립된 불일청년회는 '현실에 맞는 생활불교로 연구발전시켜 지역사회 포교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회장 김용남(가월수산 대표)씨는 "앞으로 기초교리강좌와 자연보호, 초청법회, 사찰순례 등을 통해 마산 창원 진해에 흩어져있는 불자들을 규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학림 설치령 입법예고

대둔·파계·월정사등 학림개설 준비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달 31일 승려 전문교육기관인 학림설치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원이 예고한 학림령(안)에 따르면 학림은 기본 의무교육을 수료한 비구, 비구니 대상 종단 전문교육기관으로 총림 및 본말사에 설치한다. 학인정원은 5인이상 10인이며 2년과정으로 학위명칭은 '교수아사리'이다.

또한 교육원이 이미 인가한 실상사 화엄학림과 봉선사 능엄학림은 입법예고된 학림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대둔사(선문학림), 파계사(율원학림), 월정사 등의 사찰에서 학림 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새포교사 2백74명
조계종 자격품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달 28일 불교회관 1층에서 신규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2백74명에게 신규포교사 자격을 품수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제1회 포교사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포교사의 역할과 임무'(정락스님·전 포교원장) '한국불교 포교의 현재와 미래'(김태영·포교사) 주제의 특강도 있었다.

"부당하게 낸 종토세 반환 가능"

조계종 3월경 세무지침서 배포…주지스님 교육도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해 12월 30일 '전통사찰 경내지의 종토세 비과세'를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과실로 부당하게 종토세가 부과된 세금에 대한 반환소송등 후속조치안을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년부터 전통사찰소유의 경내지는 전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토지외의 토지에도 낮은 세율이 부과 된다"고 상기하고 "비과세토지에 종토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한 토지중 수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부과된 종토세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토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사찰소유토지의 이용현황과 성격을 파악하고 미리 자료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전통사찰소유의 농지중 임대토지에 대한 과세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조계종 사찰에 부과된 종토세는 총 17억 5천여만원으로 종토세 부과에 불복 이의신청한 8억여원을 구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무원은 3월경 종토세 관련 세무지침서를 제작, 사찰에 배포하며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뇌를 끊으오리다' 다짐

대불련 수행학교 60여명 참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가평 상락향 수련원 선불장에서 제5차 수행학교를 개최했다.

'번뇌를 끊으오리다'라는 주제로 6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이번 수행학교에서는 사경, 자자와 포살, 묵언수행, 자유수행, 호흡법(ANAPANASATI)과 목탁 실수 등 생활수행 위주로 진행됐다. 또 29일 회향식에서 회원 30명이 지원스님(보련사 주지)을 계사로 오계를 받았다.

한편 대불련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 백제불교사상연구소에서 제1차 지부장단회의를 개최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집없는 설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포교를 전담해온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 935-4967)가 갈 곳이 없다.

7년여동안 무료로 레크리에이션 실습을 해왔던 돈암포교원(주지 운광)이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포교에 대한 원력만을 고집, 항상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웠던 포교회는 임대는 고사하고 곁방살이조차 엄두를 내지 못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범종교 '월드컵유치·평화통일' 기원대회

통일광복민족회의, 22일 세종회관…종교간 화합 조성도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범종교 기원대회가 열린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 등의 종교계 대표와 독립유공자회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광복민족회의(공동대표 월주스님외 7인)는 지난달 3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표단회의를 열고 '범종교 월드컵유치 및 평화통일 기원대회'를 월드컵 유치확정 1백일 전인 오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통일광복민족회의는 △월드컵 유치 기원 △종교간 화합분위기 조성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이 기원대회 개최의 취지라며 기원대회를 계기로 각 종교단체별 1백일 기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국가의 체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 선포키로 하고 제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천공단 조성 반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지난달 31일 오전 코모도호텔에서 각 교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위천공단 조성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공단설립 저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새싹불자 전방서 철야

청주 관음사 혜능보육원

새싹불자들이 성도절을 맞아 전방 군법당을 찾아 신심을 다져 한겨울의 추위를 무색케 했다.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혜능보육원 원생들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양구 의선사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신심함양과 애국심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대회는 참선, 자지와 포살, 전방견학(제3땅굴), 성도절 철야정진, 수련일기 작성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불자청소년 선도교육기관 설립 추진

가정법원 비행청소년 13%가 불자…범죄예방 차원

서울 가정법원이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불교계 비행청소년 선도교육기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청소년 가운데 약 13%가 불자 청소년으로 이들을 교정교화할 불교계 기관이 없이 타종교 시설을 이용, 심각한 종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불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전, 참선실수 등의 교육을 실시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위탁, 교육하고 있는 기관은 천주교와 기독교 7개 단체이며 불교는 전무한 상태이다.

동국대 신규교원 38명
1박2일 수계연수회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오는 7,8일 화계사와 정각원에서 신규교수 38명을 대상으로 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3일 신규교수로 인준된 38명의 교수들은 7일 화계사에서 신행교육 및 1백8배 정진을 한뒤 8일 정각원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수계와 신규교수 임명장을 받는다.

日 고베지진 1년 합동 천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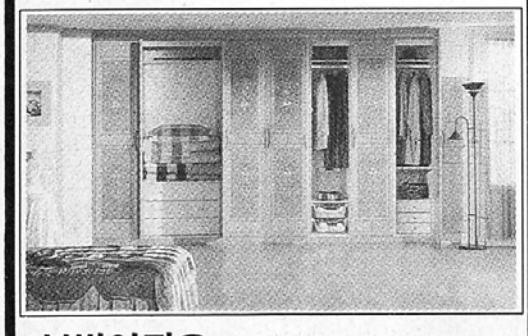
재일한국인 불교도협회

일본 고베대지진 참사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3일 고베시 나가다구의 대승사(주지 경도)에서는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홍보원 회장대리)와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회장 태연스님)의 공동주최로 '고베대지진 희생자 1주기 합동천도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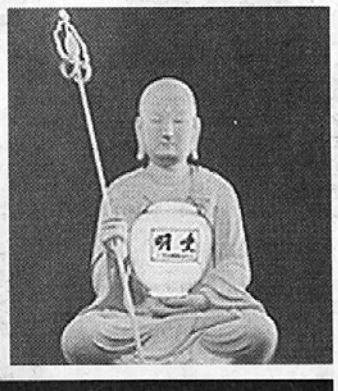
유가족을 포함한 참배객 160여명이 참가한 이날 천도재에서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신년인사와 통일에 대한 염원문을 발표했다.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 서덕근 사무국장은 "양단체가 협력해서 행사를 실현했다는 것이 큰 의의"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교포들을 위해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일본은 고베대지진으로 6천3백여명의 사상자를 냈고 나가다구에서만도 1백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개성과 가치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가구-
붙박이장
오크원목
-장미상감무늬
하이그로시

붙박이장은 :
첫째 천정과 벽과의 자투리 공간이 없어 기존 장보다 1.5배나 더 크고
둘째 내부 구조는 실용성·편리성·가치성 있게 소비자 주문에 따라 제작되며
셋째 다양한 색상·우아한 디자인·격조높은 실내분위기 연출
그리고 이사때 A/S팀에서 (분해·조립) 옮겨드립니다.
주문제작품목
공부방꾸미기, 붙박이책장, 수납장, 코너장 등 모든 주문가구
태웅비
전화 : (02) 935-4512
휴대폰 : 011-238-3545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부적대란
신호등의 불안정과 파란불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보이는 세계의 신호라면 부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질서있게 움직이는 신호라 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홍명스님 지음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지음 값 7,000원
제삼의 소리 전화 : (02) 444-3575, 5310 팩스 : (02) 3436-1064
종로서적 전화 (02) 732-5381 팩스 (02) 732-6202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소문에서 소문으로!
자비와 대광명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능한 불치병,난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일본에서 "오무라테스트"라 해서 새로운 질병 진단법으로 화재가 되고 있다.)
생명과학인 :
오-링 테스트는!
상담자의 오른손을 엄지와 인지로 맞대어 ○자 모양을 만들어 검사자는 정신적 능력으로 표준을 정하고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면 질병과 액운의 원인을 밝혀주며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증,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법현법사 특별상담!!-

조상묘지상담
모든 질환과 액운은 조상묘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 개발한 명당 도예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줌은 물론 극락정토에 이룩되게 하여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예에 모시거나 묘지옆에 묻어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이 이루어진다.
■사찰에서 49제나 영가천도제를 하실 때는 영가를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하시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왕생토록 할 것입니다.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1)465-5100,467-5200
상담장소 : 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건강백세 ③

건강과 직결 : 무방비 노출 눈병 불러

눈의 중요성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 속을 알려거든 눈동자를 들여다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 등 옛부터 전해지는 눈에 관련된 속담·격언·고사성어가 많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 눈의 중요성이 잘 반영된 것이다.

눈은 사람의 감정과 건강상태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기관이다. 얼굴전체에서 눈이 가지는 중요성은 '화룡점정(畵龍點睛 · 화가가 용의 몸을 정성들여 그리고 마지막 정성을 모아 눈동자에 점을 찍으니 그림 속의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의 고사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유순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눈을 갖고 태어 난다는 것은 여간 큰 혜택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눈길이 매서워 나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양과 인격의 도야를 통해 온건한 속마음을 가진다면 부드러운 눈길로 변할 수도 있다. 눈 얘기를 하며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외인(外因)으로 야기된 것도 많지만 소위 심화(心火) 울화(鬱火)로 표현되는 화기(火氣)는 의학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눈은 모든 사물을 보고 촬영 흑백연색으로 현상 인화하여 뇌로 즉석에서 전달해주는 초고감도의 사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눈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가운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뙤약볕이나 하얀 눈위를 걸으면서 자외선차단용 선글래스를 끼지 않는다거나 먼지나는 작업을 하면서 보안경을 끼지 않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려우면 즉시 맑은 물로 씻어내야 하는데도 비비 버려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손상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바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데도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눈병들이다.

미국인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창 하리만치 완벽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속히 받아 들여야 할 좋은 태도이다. 임신중에 선천적인 질환에 감염되거나 분만시 질산은용액점적을 소홀히해서 임균(淋菌) 감염으로 인한 실명 등은 의학의 발달로 크게 감소 되었으나 성장과정에서 외상이나 기타 후천성 요인으로 실명 또는 시각기능의 저하가 여전히 많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이온스클럽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개안시술을 통해 광명을 찾아 주는 일은 보시중의 보시라고 할 수 있겠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저 너머에 행복이 ③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것이 나로 인연되어 이루어진 것을 왜 남편만 탓하고 원망했을까 과외선생보다 보수없는 법당선생이 더 즐거웠다

정근시간에는 부처님과 간절한 대화를 나누었고 나와같은 욕심많은 중생이 있다면 하루속히 부처님 곁으로 와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발원도 해 보았다.

스님의 설법시간에 많은 계침의 소리를 들었고 울게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물질의 빈곤을 정신적 만족으로 채울 수 있음에 더욱 감사 할 수 있었고 현상적인면에서 모든 가치를 판단했던 잘못된 나의 생각들을 참회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광온을 찾아가고 있었고 관안해진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다.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든 것이 나로 인연되어 이루어진 것을 왜 남편만 탓하고 원망했을까. 남편은 항상 그자리에 서 있는데 왜 내 마음만 이리저리 굴러 다녔을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니 남편이 부처님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밝은 광명을 볼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신 거룩한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넘치는 환희심을 누구에게라도 회향하고 싶어졌다. 그동안 어린아이들을 통해 많은 수입을 올렸고 내 생활이 좀더 안락해졌으니 아이들에게 회향하고 싶었다. 우리 법당에는 어린이법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께 법회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운영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2시까지 법당에 도착해서 수업준비를 해야되고 법회가 끝난 후에도 정돈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어야 마칠 수 있었다. 만일 큰 행사에 동참하려면 준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욱 늦게 끝날 수도 있었다.

토요일은 남편과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는데 식구들을 맞이해야지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회경험도 없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하던 나로서는 외부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여러가지 봉사가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를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 같았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히 내 심정을 이야기했다. 더 늦기전에 하고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이해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두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찬성한다고 했고 남편 역시 아이들도 이 정도 자랐으니 하고싶은 일을 열심히 해보라고 승락해주었다.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함장을 하고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대신 저녁식사 시간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법회 교사는 모두 여덟분인데 그중에서 아줌마는 나 혼자였다. 아이들이 젊은 선생님을 더욱 좋아 할 것 같아서 토요일에 집을 나설때면 겨울도 여러번 보고 입술도 빨갛게 칠해서 예쁘게 했다. 의욕은 누구못지 않게 넘쳤지만 가능한면 면에서는 젊은 선생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 나이탓으로 동요 부르기도 힘들었고 율동하기도 어색하기만 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의 모든 동작은 궁떠서 한번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 스스로 좌절도 했고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약함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다. 고맙게도 어린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나면 나에게 나날이 좋아진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저런 도움으로 현재 어린이 법회를 2년째 맡아오고 있다. 그래도 과외선생님 하는 것 보다 법당선생님 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보수없이 하는 봉사다 보니 마음이 가벼웠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벌빛되어 내 눈속에 들어왔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많이 어떻게 가르쳐줄까? 나의 욕심은 날로 늘어났다. 부족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습회에 나갔다.

이희명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KUNDASUTTA

♦ Buddha describes the four different kinds of Samanas to Kunda, the smith

부처님이 네 종류의 수행자를 대장장이 춘다에게 설명하셨다.

♦ 'I ask the Muni of great understanding,' – so said Kunda, the smith. – 'Buddha, the lord of the Dhamma, who is free from craving, the best of bipeds, the most excellent of charioteers, how many (kinds of) Samanas are there in the world, pray tell me that?' (82)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께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진리의 주인, 집착이 없는 분, 인류의 최상인(最上人), 뛰어난 마부이신 부처님,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습니까?"

♦ 'There four (kinds of) Samanas, (there if) not fifth, O Kunda,' –so said Bhagavat, – 'here I will reveal to thee, being asked in person, (they are) Maggaginas and Maggadesakas, Maggajivins and Maggadusins.' (83)

스승이 대답하셨다. "춘다여, 네 종류의 수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㉔

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 수행자는 없느니라. 내가 말한 수행자란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 이니라."

♦ 'Whom do the Buddhas call a Maggagina?' –so said Kunda, the smith, – 'How is a Maggagghayin unequalled? Being asked, describe to me a Maggagivin, and reveal to me a Maggadusin.' (84)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왜 '도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bipeds (두발 짐승) 사람
*Samanas 사문, 수행자 (빠알리어)
*Magga 도(道), 성스러운 길 (빠알리어)
*Buddha 깨달은 자 (빠알리어)

오증욱 기자

알레프 ㉘

보르헤스 作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그집을 부수다니… 지하실 구석에 알레프가 있는데"

두번의 일요일이 지나고 나서 까를로스 아르헨띠노 다네리가 내게 전화를 걸어 왔다. 내가 기억하기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니노와 숭그리(자네도 기억할 테지만 우리집의 주인 아닌가)가 저쪽 모퉁이에 발전적으로 개업하는 옆 살롱바, 즉 자네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제과점에서 함께 만나 우유나 마시지."

다네리는 4시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마지못해 그 제의에 동의했다. 철저히 현대적인 그 살롱바는 대단했지만 내 예상에는 다소 못미쳤다. 옆 테이블에서는 흥분한 손님들이 수니노와 숭그리가 투자한 돈의 예누리 없는 총액수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었다. 까를로스아르헨띠노는 조명시설의 화려함에 대해 놀라는 척했다.

"자네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곳이 플롤레스에서 가장 알아주는 살롱바에 못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걸세."

이 말을 하고나서 그는 시 너덧 페이지를 더 읽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시 중에서 서곡들만 출간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별나게 나를 불러낸 이유를 눈치 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현학적인 잡문의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다.

나의 두려움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아르헨띠노가 분노 섞인 찬사로 말하기로는, 문인인 알바로 멜리안 라피누르가 각계에서 얻은 명성은 확고하다고 보아 틀림없이 없으며 만일 내가 애만 쓴다면 그 사이 심취해 서문을 써 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목요일에 작가클럽의 모임이 끝난뒤의 만찬석상에서 알바로와 얘기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금요일 1시 이후, 전화가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한때는, 자금은 듣기힘 수 없지만 베아뜨리스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전화가 이제는 기만에 빠진 아르헨띠노의 부질없고 아마도 노여움 섞인 하소연이나 받아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나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행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 가다로운 일을 떠맡겼다가 이내 나의 존재를 잊어버린 그 작자로인해 불가피하게 내가 품게된 앙심 이외는 말이다.

10월말에 아르헨띠노가 다시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는 슬픔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수니노와 숭그리, 그 자들이 제과점을 확장했다는 명목으로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부수려고 한다고 씩씩 거렸다.

"내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가리이가의 유서 깊은 고가를 말일세."

그는 머뭇거리다가 무언가 은밀한 얘기를 털어놓을 때 보이는 나지막하고 개성없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지하실의 한쪽구석에 알레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 집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했다.

그는 알레프란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공간의 지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그림 · 심민섭

〈계속〉

